

이번 브라질 월드컵 경기 열매를 맺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며 그 경기를 지켜...
이런 브라질 월드컵 경기 열매를 맺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며 그 경기를 지켜...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7월 19일 (토) 제 149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축구 열기, 이제는 예수 열기로!

바나리서치, '2014월드컵 마침내 축구사랑 미국인 만들었다' 설문결과 보도

지난 한달 동안 지구촌을 온통 들썩거리게 했던 '2014 월드컵 우승의 영광은 24년 만에 독일에게 안겨졌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스포츠 천국인 미국이다. 다시 말해서 축구가 그동안 무관심의 설움을 벗고 마침내 미국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말았다. 미국 대표팀의 경기가 야구와 같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스포츠를 제치고 당당히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인들은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연일 백악관을 압박하기까지 했고, 미국의 잡지 표지, 일간지 헤드라인을 온통 월드컵이 장식했다. 게다가 지난번

미국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북미 ESPN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다. 축구가 미국의 많은 대중들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이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까지도 16강에 오른 미국 선수들의 고군분투를 장문의 기사로 보도하고 있어, 바나리서치는 드디어 월드컵 열기가 미국 국민들까지도 빨아들이고 있다는 판단으로 과연 스포츠가 미국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 조사 결과(Fútbol to Football: What Americans Think of Sports)를 보도했다.

약해내고 있다. 미국인들은 포르투갈이 경기 후반 미국을 상대로 넣은 골의 부당함이나 경기 규칙 등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미국이 월드컵과 사랑에 빠진 날(The Day America Feel in Love With the World Cup)"이라는 제목처럼 사랑을 서슴없이 고백하기까지 했다. "잉글랜드의 땅"에서 축구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펠레의 뉴욕 코스모스 입단과 함께였다. 그러나 1994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월드컵이 개최됐고, 브라질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월드컵이 미국 내에 일으킨 파장은 지금 브라질 월드컵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미친다. 미국의 축구로의 이행에 브라질이 크게 한 몫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인들이 축구에 빠져드는 것에 트집이나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스포츠에 빠져드는 것이 좋은 일인가? 밤잠을 설치가며, 아니면 점심을 거르며 심지어는 주일 예배시간에 빠져나가 월드컵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바나리서치는 설문을 실시했다. 미국인들에게 스포츠나 스타 선수들은 한마디로 우상에 가까운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작년 바나리서치는 운동선수들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설문에서도 미국 성인들 중 43%는 스포츠가 미국 문화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을 정도이다.

(3면으로 계속)



이번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스포츠 천국인 미국. 미국인들의 축구 무관심이 열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이트에서도 월드컵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 신문의 오피니언 섹션에서는 현재 '축구'의 이상한 '규칙'에 대한 논의가 중심 스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네이마르와 이니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

날두의 근육 운동을 상세하게 표현해낸 환상적인 멀티미디어 기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미국인들과 축구 사이에 갓 피어오른 이 따끈따끈한 러브스토리는 잡지 "더뉴욕커"의 블로그가 잘 요

이번 여름, 성경묵상의 즐거움에 빠져보라!

성서유니온선교회, 묵상훈련 유익에 대한 이론과 실제 안내

"묵상,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면 여행. 성경묵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여정이요 나를 찾아떠나는 여정이다. 성경묵상은 구비하여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만 하는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다. 성경묵상은 기쁨이 있는 축제의 여정이요 경이가 있는 신비의 여정이다. 성경묵상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여정이다."

도처에 영적 황탕물이 널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더욱 깊어만 간다. 많은 이들이 그 목마름의 정체를 모르고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딛고 선 그 자리에서 샘을 파야 한다.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OT방식으로는 맑은 샘물을 퍼 올리기 어렵다. 좀 더 일관되고 진지한 묵상의 삶이 필요하다.

성서유니온선교회는 그동안 말씀사역에 전념해왔다.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번 여름에는 우리의 메마른 일상에 묵상이 주는 말씀의 오아시스를 안내해준다.

여호와를 즐기고, 공동체를 즐기고, 자연을 즐김(feast)
무엇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만다. 헛배가 불렀을 뿐인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만족하고 있다고 너무 쉽게 설득당하고 만다. 묵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지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갈망해야 할 것은 너무 적게 갈망하고, 갈망해도 얻지 못하고, 얻는다 해도 무익한 것만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자족해서는 안 된다. 너무 적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적게 경배하는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니 슬피해야 마땅한 영적인 적신호이다.

따라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며, 하늘가는 우리의 길 앞에 놓인 죄의 권능을 깨뜨리는 열쇠가 된다. 인간의 마음은 쉽 없는 욕구 제작소이고, 죄는 강력하게 그리고 자멸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디서 마실까', '어디서 즐길까(feast)' 묻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묵상의 즐거움을 통해 여호와를 즐기고(feast), 공동체를 즐기고(feast), 자연을 즐기는(feast) 것뿐이다. 이 즐거움을 맛보으로써 궁극적인 즐거움을 사모하는 것뿐이다.

묵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며, 그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이다. 묵상은 하지 않으면 안되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그 기쁨을 알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이 우리가 다시 묵상의 여정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이며, 그 즐거움의 공유가 갖는 시련과 연약함 속에서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다. 우리가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묵상의 즐거움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오순절 교회는 성경적이다! 2면



시편은하나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3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규 박사(ICSK원장) 7면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 노봉린 박사 13면



Advertisement for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Includes logo, title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ebsite 'www.rptse.com', and details about 2014 fall semester classes and enrollment procedures.



시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함으로 혼혈과 타락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여 멍하니 앉아 있다가 분노하여 옷을 찢었고 찢은 옷을 그대로 입을 채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스 9:5-6).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의 소식을 듣고는 한편으로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옷을 찢었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 그는 옷을 찢음으로써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동시에 찢은 옷을 그대로 입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므로 흥하고 추악한 유대 백성의 범죄한 모습을 형상화했던 것이다. 우리가 비록 엄청난 죄를 범했을지라도 솔직하게 범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사1:18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우리 서로 이야기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은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겸손히 꿇어앉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저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옷을 찢었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에스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여 내가 부끄러워 낫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이다"(6)라고 고백하였다.

자기 동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웃과 사회의 죄악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신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이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은 죄에 동참하지 않았기에 의인이라는 생각에 서로 잡혀 스스로 자족하며 타인의 범죄에 무관심한 채 안일하게 지내며 남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다. 그러나 참다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타인의 죄를 가슴 아파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에스라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겸손한 자세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은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시이다. 즉 내 능력(손)은 약 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표시이다. 왕상19:18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왕상8:54에 보면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오늘날에도 국가 사회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실 것이다.

손은 인간의 능력을 상징한다. 에스라가 두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전폭적으로 자신을 항복시키는 사람의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웃과 다른 교인이 저지른 죄악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에스라와 같은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이다. 중보기도는 어느 기도보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이다. 우리도 나보다 남을 위하여 더 간절히 더 힘써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기를 기원한다.

오순절 교회는 성경적이다!

카리스마, 오순절교회에 대한 10가지 오해 소개와 해명 보도

교회사에 있어 "제 3의 물결"로 불리우고 있는 오순절교회의 성장은 1906년 이후 100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25% 정도가 오순절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한 세기 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교회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없 수 없다.

특히 남미의 50% 이상이 오순절교회이고 전 세계 오순절교회의 26%가 남미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남미의 오순절교회는 더 이상 일반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중상층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권이 됐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교회가 아니게 되어, 많은 일반서민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지적되는 것은 기복신앙이나 성경의 현재적인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여기다가 잘못하면 주관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 오순절 계열의 교회 가운데 소위 사이비나 이단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오순절교회 계열인 "카리스마"지는 오순절교회에 대한 10가지 오해들을 소개하면서 동 교단의 정당성을 보도한다(10 Top Misconceptions About Pentecostal Christians: Don't believe the stereotypes about Pentecostals in America).

7. 모두가 공화당원이 아니다. 물론 공화당 티파티 운동의 핵심들(Sarah Palin, John Ashcroft)이 오순절 교인들이지만, 모든 보수적인 백인들이 모두 오순절 교인들은 아니다. 현재 상당수의 교인들은 바로 흑인들과 히스패닉이며,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다.

8. 인종주의자들이 아니다. 오순절교회의 태동에는 어느 정도 인종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오순절이나 카리스마틱 교회에는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종들이 모여 있다. 바로 성경 안에서 인종이나 문화적인 벽들이 갈라져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9. 딱 막힌 사람들이 아니다. 오순절 설교자들이 다른 침례교 설교자들처럼, 한때는 세속적인 여흥이나 오락 즉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는 세속적인 것들에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한 적이 있다. 여성들은 바지를 입어서도 안되고, 화장도 해서는 안되고, 남성들은 카드 놀이를 해서는 안되고, 영화를 보는 것도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로렌 카닝햄의 아들인 데이빗은 영화감독이다.

10. 사라지지 않는다. 1980년에는 오순절 교인들의 전체 크리스천들 중 오직 6%였다. 그



1. 오순절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60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도 오순절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오순절성공회, 오순절감리교, 오순절침례교 그리고 상당수의 오순절캐톨릭들이 출몰하게 됐다.

2011년 퓨리서치 설문에 따르면 현재 오순절이나 카리스마틱 교인들의 숫자가 미국에서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년에는 영국성공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인 저스틴 웹비는 방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25%가 오순절 교회 영향 받아 "가난하고 무식하지 않으며 번영복음 주장하지 않아"

2. 무식하지 않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

항상 오순절교회는 신학적으로 무식해 어리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 3월에만 세계에서 저명한 300명의 오순절 신학자들이 미조리 스프링필드에서 모였다. 여기에는 100개 교단, 200개 신학교들에서 온 신학자들이 오순절 신학에 대한 견해를 정리했다.

3.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1906년 오순절교회의 시작은 천막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중상층들이 대개 교인이며,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부유한 오순절교인들이 대규모 선교 프로젝트들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홀리 로비'사의 회장, 데이빗 그린 역시 오순절 교인이다.

4. 번영의 복음을 지지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오순절교회의 목회자들이 번영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오순절 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 사실상,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오순절 설교자인 탈라스의 T. D 제이크스는 리얼리티 쇼에 참가한 번영의 복음 설교자들을 꾸짖고, 교인들에게 시정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기까지 했다.

5. 뱀을 다루지 않는다.

케이블 방송채널(National Geographic)에서 얼마 전에 "뱀으로 말미암은 구원 쇼"를 방영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불과 125교회들만이 이러한 유사종교행위를 하고 있고, 교인들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재미있는 사실은 뱀을 다루는 교회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던 제이 미 쿡츠가 올해 바로 뱀에 물려 사망했다. 오순절 교단은 1910년 뱀을 다루는 의식을 이미 정죄했다.

6. 방언을 할 때 의식을 잃고 초월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

오순절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들이 원할 때, 쉬고 또 기도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방언 기도는 평안과 함께 안정을 가져다준다. 뉴욕타임스 역시 2006년 보도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교인들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선다고 한다.

러나 현재는 26%에까지 이르렀다. 풀리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만 오순절 교인들이 35,000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 조 정도로 교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오순절교회는 절대로 미국 사회의 한 구석에 속한 변두리가 아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경기수칙 준수...풋대 향해 경주

바나리서치, '2014월드컵 마침내 축구사랑 미국인 만들었다' 설문결과 보도

(1면에서 계속)

좀 더 세분해보면 남자들(46%) 그리고 부머스 세대(48%)와 크리스천들(55%)이 스포츠의 영향력에 동조하고 있고, 반면에 밀레니엄 세대(38%)와 연수입이 2만 달러미만에 고졸인 사람들(33%)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41%), X 세대(42%), 엘터스(43%) 등은 평균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휴일이나 짬만 있으면 야구나 농구, 골프 그리고 프로 풋볼 경기를 보는 미국인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어떠한 미디어보다도 스포츠 전문채널인 ESPN의 상승가는 연일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종이 바로 대학운동코치로, 67% 미국인들은 스포츠가 삶의 우선순위라고 응답하고 있을 정도다.

결국 ESPN채널에서도 NFL이나 FIFA내에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로, 스포츠 전문 논객들의 쟁점을 제기로 한 "운동이 너무 우선시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월드컵에만 국한시켜도 이미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 카타르에서는 축구장 신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했고, 브라질에서도 대형 축구장 신축과 개축에 4천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해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인들 역시 스포츠가 주는 부정적인 측면에 염려를 하고 있다. 즉 62%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프로 운동 경기들이 "심각할 정도로 부패했다"고 응답을 할 정도다. 그리고 86%는 운동선수들이 너무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스포츠가 실제로 지구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는 무엇일

까?

이번 월드컵을 통해 축구가 미국에서 사랑을 받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스포츠"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청률과 실제로 참여해 운동을 하는 스포츠는 아직까지는 "미국 풋볼"이다. 53%의 미국인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이를 시청하고 실제로 경기를 벌이고 있다. 야구와 농구는 그 다음으로 33%가, 골프와 축구는 11%, 테니스는 10%의 고정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전통적인 스포츠들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남성들 위주의 경기라는 특성이 작용한다. 따라서 자녀들과 집에서 운동을 하는 비율은 18%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야구와 농구는 22%로 아직까지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난히 스포츠가 인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크기와 영역 그리고 재정적 지원

이 조달되고 있다는 독특성에 기인된다. 일단 스포츠를 실제로 경기하고 시청하는 고정 팬들의 수입과 라디오, TV, 인터넷의 결

그러나 현재 축구는 레크리에이션 영역으로까지 더욱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나 경향을 따져볼 때 NFL이나 NBA같이 MLS(미국프로축구리그)가 각광을 받는 시장으로 성공할 수 있다. 결론으로, 신앙과 운동경기는 깊은 관련이 있다. 신앙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의 책 '영적 성장의 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책이다. 성경에서도 종종 신앙과 운동경기를 유비(analogy)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딤후2:5).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복음과 무관한 인간의 행위는 코스를 이탈한 경주자처럼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실격처리 될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12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수많은 관중들이 짝 들어찬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경주하는 운동 선수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를 지켜보는 신앙인들이나 교회 리더십은 항상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거나 운동을 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울은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다. 미국인들이 스포츠를 보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으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원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합으로 거의 열광적인 수준으로까지 격상되고 있다. 축구는 전통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약세였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스포츠들은 미국 태생 선수들과 고정 팬들이 있지만, 축구는 먼저 히스패닉 시장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히스패닉 미국인들은 어떠한 미국인들보다 축구에 열광한다. 즉 35% vs. 16%로 거의 두 배나 높게 이들은 축구를 하고 또 보고 있다. 밀레니엄들 역시 성장하면서 축구를 한다. 미식축구나 농구, 야구는 어렸을 때 하지만 축구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삶에 대해 미국적이 아니라 좀 더 글로벌적이다. 따라서 많은 밀레니엄들은 축구만이 진정으로 글로벌한 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목상의 목표(aim)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즐기는 데서 나오는 교제의 즐거움 때문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지난 상반기 하나님을 위한 일로 지쳤다. 하나님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만 몰두했었다. 이제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볼 때이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목상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목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우리 모두 목상을 즐기고, 목상의 즐거움에 빠져보기를 소망한다.

시범 112편 : 생각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2편 : 생각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112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 중 우리의 복된 신분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두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영원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서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처럼 피를 받아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육체의 것이고 그 육체는 잠시 후면 다 벗어버릴 것이므로,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내 부모, 내 자녀의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 관계는 혈육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을 때 맺어지기 때문에 육신이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영적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께서 구분되어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히12:9). 하나님을 우리 영의 아버지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신분을 받았습니디.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복을 받은 신분이지만 나의 생각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대로 불행한 옛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몫은 출애굽하였지만 그 생각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생각이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은혜를 베푸는 자라'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사는 습관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항상 은혜를 채움 받아서 사는 자기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임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넘치게 받는 생각의 훈련을 하여야 하고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것을 버리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벗어지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우리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베풀어주는 습관을 이제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베푸는 것은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루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으면 자신의 신분이 변화 된 것을 알고 보아스의 신분과 그의 재산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사를 좇고자 나간다면 그 생각이 아직 옛 루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너는 내 자녀이다. 너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재산을 많이 쓰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의 재산을 많이 쓰면 이자가 엄청나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인생할수록 그 사람은 인색하게 삽니다. 마음에 있는 재산을 많이 쓰십시오. 자기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너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고 하십니다. 부부기간에도 이것을 잘 써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어울리게 살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버지를 크게 가지십시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이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복을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신분으로 은혜를 많이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았으니, 많이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흘러 나갔는가?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얼마나 흐르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게 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번 여름, 성경묵상의 즐거움에 빠져보라!

(1면에서 계속)

묵상을 통해 얻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길에 동참하는 기쁨,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 사건의 증

인이 되는 기쁨이야말로 거친 광야를 걷게 하는 원동력이다. 묵상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얻고 싶어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없게 된다. 하나님 자신이 묵상의 목적(purpose)이 되

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목상의 목표(aim)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즐기는 데서 나오는 교제의 즐거움 때문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지난 상반기 하나님을 위한 일로 지쳤다. 하나님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만 몰두했었다. 이제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볼 때이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목상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목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우리 모두 목상을 즐기고, 목상의 즐거움에 빠져보기를 소망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축구 전쟁

온 세계를 흥분시켰던 월드컵 경기는 연장후반 8분을 남기고 독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찍 패배의 고배를 마신 우리 한국대표선수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치루고 있습니다. 16강의 꿈은 사라졌고 앞으로 한국 축구의 전망이 불투명하며 아우성치는 고국의 팬들에게 입국장에서부터 '앗'을 뒤

집어쓰는 치욕적인 모멸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비단 한국대표선수들뿐 아니라 개최국인 브라질이 독일에게 1:7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골 차이로 완패하게 되자 광분한 민중들은 버스 20대를 방화하는가 하면 거리거리 예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남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브라질은 과거

1950년 승리를 장담했던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자 경기장에서 심장마비로 2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하니 그들의 축구에 대한 관점과 열정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4년 미국월드컵경기에서 콜롬비아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1994년 월드컵은 콜롬비아의 승리를 점칠 만큼 강력한 우승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예선 1차전에서 콜롬비아는 루마니아에 1-3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미국과의 2차전에서는 안드레아스 에스코바르(콜롬비아 선수)의 자살골로 선취점을 내주며 1-2로 패배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선탈락이 확정되자 온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마약조직인 '메데인카르텔'은 "선수들이 귀국하는 대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수 홀로 조용히 귀국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고향인 메데인시의 한 나이 트클럽에 들렀다가 괴한에게 피살

되게 됩니다.

축구전쟁(La guerra del fútbol)은 1969년 발생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전쟁이며 이른바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는 축구전쟁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물론 단순한 축구의 승패문제만은 아니며 양국 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잠재된 갈등의 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1970월드컵 북미예선전 중에 발발한 폭동과 맞물려 발생한 전쟁이었습니다.

축구의 뒷이야기는 콜롬비아나 브라질 같은 극단적인 면과 극단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아름다운 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과 영국 양국 병사들은 약100미터 앞에 대치하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양국 병사들은 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 가운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치중이던 양군 병사들은

서로 조율하게 크리스마스를 각각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케를송을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함께 성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양국 병사들은 전사자들의 시신을 정리하고 수습된 터에서 축구팀을 급조하여 양국 간에 축구 경기를 하며 함께 잠시 전쟁의 시름을 잊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 결과는 3-2로 영국이 독일에게 패했고 밤이 되자 이들은 같이 케를송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다음에 각자의 군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일로 인해 양국 군사들은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감동적인 사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FIFA월드컵의 역사는 1928년 당시 FIFA회장이었던 쥘 리메가 국제적인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서 시작됐다고 전합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FIFA월드컵이 개최되었을 때 초청 받았던 팀은 단 13개국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세계 200여 개국

이 넘는 국가대표들이 출전하여 2년에 걸쳐 예선전을 치른 후 본선에 출전하는 32개국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국 성인남자라면 누구나 축구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별다른 놀이문화가 없던 시절 흙먼지 날리는 동네골목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 때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며 청춘의 기운을 발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월드컵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서로 이해와 협력을 추구하며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경기모습과 고국의 축구에 대한 반응을 보면 월드컵의 본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같습니다. 아무쪼록 월드컵경기가 서로를 이어주며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순수한 경기가 되길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기대해 봅니다.

푸 / 른 / 초 / 장

이규현 목사

(부산 수영로교회)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언제나 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신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몸 안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워서 의학자들이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단순히 어떤 조직체나 기관, 단체,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보기에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공동체의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본문 4절에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롬12:4). 신체의 장기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깨가 안 좋아서 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침을 맞을 때, 팔가락에 놓는 것인데 온몸이 반응을 하는데 그때 온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뼈가 우리를 서게 하는 것 같지만, 뼈에 살이 붙어야하고 근육이 뼈를 서게

하는 구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수많은 신경조직이 있고, 미세한 혈관이 연결되면서 이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려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세포가 있다면 그것은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 안에 있다면 서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이고 유대적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몸이라는 존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도 독립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한 몸 안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눈이든 코든 입이든 위장이든 폐장이든 몸의 한지체로 내가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원들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도 있고, 악기도 있고, 다양한 소리를 내고 지휘자와 반주자가 있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은 없

행해지는 것은 공동체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흠을 있을 때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회복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교회

(로마서 12장 4-5절)

우리가 교사로 섬길 때에도 이것이 단순히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교사로서 잘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좋은 일원이 되고, 나의 손자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몸 밖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굉장히 불

행해지는 것은 공동체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흠을 있을 때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회복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의식하고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내 끼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몸이라는 개념은 개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방식이나 모든 것들의 핵심은 몸이 하나 되는 것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의 방식, 사역, 모든 것 안에 최우선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엡4:3-4)라고 했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성령도, 소망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데 힘을 써야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성품훈련입니다.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한 것부터 기도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아버지'는 나쁜 아니라 자기주장이 강하고 모가 난 성품

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몸을 깨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고 능력이나 재능 실력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좀 더 되고 못하더라도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신앙의 변화는 결코 혼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있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혼자 신앙 생활하며 구경꾼으로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안에 들어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인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그 위치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더 헌신하고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7 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The Great Vision Church)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 대 상

High School Senior, College, Graduate School

● 자 격

일반 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목회 장학금: 선교사, 목회자 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 제출서류

- 신청서 교부 - facebook group "Great vision church scholarship 2014" 에서 다운
- 본인 에세이 (Letter size 2장 이하)
- 증빙서류- 일반 장학금: 성적 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혹은 학교 교사 추천서
목회 장학금: 재학 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 출석 교회 주보
- 수여금액: 대학생 (\$1,000), 고등학생 (\$500)

● 접수마감

2014년 8월16일 소인

● 접수처 및 문의

우편접수 : 청운교회장학위원회 (THE GREAT VISION CHURCH)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90029

장학금 수여식은 2014년 8월 31일(주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8월 18-22일까지 개별통보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전화문의는 사절하며 접수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청운교회
The Great Vision Church (CRC)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써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선한 싸움”의 승리-신앙을 고수한 기업인들

6월 30일,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에서는 크리스천들의 매우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기독교 기업들의 승리인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하비라비회사로서 지난 2012년 9월 오바마케어(ACA)가 기독교 신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하루에 130만 달러의 엄청난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선한싸움, 그 치열한 영적 가치관의 싸움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본지 1491호 1면 참조: 편집자주].

하비라비는 어떤 회사이며 누가 운영하는가?
하비라비는 미국 대형 공예품

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비라비는 여러 재판에서 패배하기도 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와 여러 반기독교 단체들로부터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선한싸움을 하여 지금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지난 1993년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인 '종교자유회복법' 즉, 정부의 제약에 대해 종교적 행위를 보호하려는 법안에 의해 통과된 것인데, 보통 RFRA라는 법안은 기독교 기업에 해당은 되지만 주로 비영리 단체에만 적용이 되어왔기 때문에 RFRA가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영리기업들의 종교적 자유에 대해 손

때도 3명의 여성판사들인 Sonia Sotomayor, Ruth Bader Ginsburg, Elena Kagan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비라비가 오바마케어에 들지 않을 경우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 여성 직원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 이중에는 동성애자 판사도 있고 최소한 그들이 친동성애 여성판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하비라비의 회장인 데이빗 그린리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그가 소송을 건 이유는 “생명이 물질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익을 내는 것 보다 중요하다”라고요. 미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미디어와 세상 언론들은 마치

오바마케어와 싸운 하비라비, 하루 130만달러 벌금 감수 코네스토가 가구, 휘튼대 등 잇달아 승소...영적전쟁 계속

도매회사로서 라스트네임이 그린(Grain)이라서 그린패밀리 기업이라고 불리 올만큼 큰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72세가 된 데이빗 그린 회장이 1972년 아내 바바라와 함께 기도하며 300스퀘어피트밖에 안되는 작은 차고에서 6백달러로 시작한 이 회사가 지금은 미국 41개주에 500여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3만5천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2013년에는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데이빗 그린 회장은 회사성장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뿐이다” 데이빗 그린가족들은 신앙이 매우 독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전파와 성경배부에 적극적인 데이빗 그린 하비라비의 사장 데이빗 그린 회장은 17년째 매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마다 미국 전역의 주요 신문에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 예수님탄생과 부활을 알리는 전면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선교단체들의 재정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하비라비 회사의 선언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 회사를 운영하며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까지 변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우리는 믿는다.’

오바마케어 VS 하비라비 기업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달 보험비 일부는 그들이 후원하고 지지하는 낙태, 낙태약, 또는 성관계시 사용되는 물건들의 후원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비라비 가족들에게 있어서 회사전체가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큰 문제가 되었죠. 따라서 2012년 9월 당시 오바마케어를 감당하고 있던 국무총리인 Kathleen Sebelius를 상대로 ‘Sibelius vs Hobby Lobby’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선한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둬!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5-4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및 성관계 때 사용하거나 낙태에 관련된 비용들을 부담하고 싶지 않을 경우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판명으로 하비라비 회사

를 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연달은 승리의 소식들 같은 날 6월30일 그린패밀리가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천 책방 체인점인 Mardel Christian & Education store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 코네스토가 우드 스페셜리스트(Conestoga Wood Specialist)라는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가구를 만드는 기업 역시 오바마케어를 직원들에게 가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요! 또 지난주 7월 3일에는 휘튼대학교도 오바마케어에 관련한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하비라비와 같은 소송의 승리는 신앙의 자유 법안을 허락한 사무엘 알리토(Alito) 판사와 정부가 신앙의 자유까지 뺏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한 케네디(Kennedy) 판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영적 가치관 전쟁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하비라비와 같은 영리기업이나 학교들은 교회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반발해왔으며 이번 연방대법원에서 5-4로 판결을 내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한국이 과거 쇠국정책을 펼 때 외국 선교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인지요? 그리고 핍박을 받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최초의 개신교 신자는 누구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A: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homas, 1839-1866)라는 선교사입니다. 총신의 박용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이야기’란 책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12월에 영국 런던대학을 졸업한 후 동양의 선교에 불타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도착합니다. 그는 갖 결혼한 아내 케틀라인 갓프리과 함께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임신 중인 아내는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에다가 중국의 기후가 잘 맞지 않아 심한 고생을 하다가 유산을 하고 결국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 절망을 달랠니다. 그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해도 창린도에 와서 2개월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한글을 익힙니다. 그런 후에 그는 1866년 제너럴 서먼호(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입국한다는 말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합니다. 그는 1866년 8월1일 상당한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 당시

첫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죽인 박춘권이 영수 돼

대원군 치하의 한국은 쇠국정책을 쓰고 외국과 접촉을 끊고 있었기에 박용규라는 평양감사는 그 배를 볼 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타자 사람들이 물로 나오자 군관들이 한사람 한사람 다 칼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나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는데 그는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춘권에게 무릎을 꿇고 앞드려 가지고 온 성경책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잠시 머리를 숙이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는 다시 성경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졸은 성경받기를 거부하고 이내 그를 칼로 내리치며 처형했습니다.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피를 흘리며 첫 한국 개신교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지 2년 반 만에 아내의 뒤를 이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터틀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순교로 인한 교회의 씨는 토마스가 순교하던 바로 그날부터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 병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여가면서도 내게 그렇게 건네주려 했을까?” 생각해 동료 물레 그는 대동강 그 현장에 가서 흠어진 성경책을 주워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박춘권은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결국 그는 예수를 믿고 훗날 교회의 영수 즉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그 성경을 읽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그는 평양 숭실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 우리가 갖고 있던 한글 성경 2/3를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26살의 영국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한 알의 밀이 되어 한국 교회에 최초의 신자를 만들어 내었고 한국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 신간

464면 / 17,000원

예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좋은 제자인가?
한국교회에서 예수영성의 회복을 부르짖는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의 오랜 고민의 흔적이 담긴 책.
『예수 제자의 삶』 --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마리아의 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의 삶,
두 시리즈로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한다.
『예수 제자의 삶』이 제시하는
예수 제자 된 삶을 이제 펼쳐보자.

320면 / 14,000원

생명의 숲

생명을 말하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예수생명 안에서
자라고 나누는 풍성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윤재목사

이윤재 목사의 다른 저서들

- 성경의 은유 508면 / 17,000원
- 변화 344면 / 12,000원
- 생명의 초청 272면 / 10,000원
- 성령이 임하시면 240면 / 9,000원
- 광야의 영성 256면 / 8,000원
-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250면 / 9,000원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담펠라스(DAMPÉLAS)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구성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에는 300종족 이상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무슬림이다. 이 지역의 역사는 여러 작은 왕국들의 흥망성쇠,

방어와 침략을 위해 이들 사이에 때때로 맺어진 연맹체의 역사다. 담펠라스는 토미니(Tomini)라는 좀 더 큰 종족의 일부다. 토미니는 담펠라스 외에 몇 개의 다른 종족을 포함하고 있다. 담펠라스의 인구는 약 13,700명이며, 슬라웨시섬(Sulawesi)의 북서쪽인 반도 부분에 살고 있다. 인접 종족으로는 고론탈로족(Gorontalo), 불로족(Bulo), 그리고 서토라자족(Western Toradja)이 있다. 언어학자들은 예전에 모든 토미니족 언어들은 서로 소통이 가능하며 다른 이름들은 단지 사투리일 뿐이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각 부족의 언어들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한다.

삶의 모습

전통적으로 토미니 사람들은 숲탄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각 부족은 세습 족장과 그 보좌인들이 이끌고 있다. 보좌인들은 고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술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왕족, 귀족, 일반계층, 그리고 노예계층으로 4개 계층이 뚜렷했는데 노예들의 독립 이후 일부 지배계층과 그 일족들은 새로운 정치제도에서 자리 잡았고 그 외의 지배계층들은 개인사업가가 됐다.

1950년 후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분리주의운동이 술라웨이 전역에 걸쳐 젊은 층에 의해 일어났다. 토미니족이 사는 지역에서는 분리주의운동이 1960년대의 페메

스타 항쟁(Pemesta Rebellion)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었다. 그 무렵까지 정부는 토미니족 지역을 국가적, 국제적인 경제체제 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정향(향료의 일종)은 대형농장으로 성공했고 국제적인 목재소도 설립됐다. 해안에 사는 담펠라스 사람들은 코프라(copra, 코코넛 기름을 만드는 건조코코넛)와 야자 농장 운영이나 상업적으로 정향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벌목이나 뱃일을 하기도 한다.

고산지역에서는 쌀과 옥수수 그리고 사고(sago: 식량 또는 옷감을 풀 먹이는데 사용하는 야자에서 추출한 녹말)를 재배한다. 또한 강을 끼고 무역을 하기 위해 라탄(rattan, 고리버들 세공에 사용되는 야

자줄기)를 수확하기도 한다.

결혼은 무슬림의 전통을 따르며 신부의 가격을 협상하는 중재자에 의해 준비된다. 금액은 여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종 사촌끼리의 결혼이 우선권이 있지만 가끔은 친사촌끼리의 결혼도 생긴다.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긴 하지만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일단 결혼을 하면 부부는 보통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다.

신앙

이슬람교는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이며 담펠라스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4세기 이전부터 섬 전역에 넓게 퍼져있는 힌두교는 이제 소수만 믿고 있다. 인구의 약 13%가 기독교인이고 그 중 대부분은 개신교이며 많은 중국인들은 불

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따른다. 정령종교(사람이 아닌 존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종교)는 오지의 사람들에게 의해 숭배되고 있다.

담펠라스들은 대부분 수니파 무슬림들이지만 여전히 내륙 산지에는 소수의 정령숭배자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이방부족(foreign tribe)을 의미하는 수쿠 테라싱(suku tersing)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인도정부의 재배치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담펠라스족에 대한 기록정보나 자원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종족 중에 알려져 있는 믿는 사람의 수는 적다. 오직 기도만이 오랜 시간 이 지역 사람들을 묶고 있는 영적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보코하람 납치 여성 소녀 등 60여명 탈출

지난달 22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의 한 마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성과 소녀 등 60명 이상이 탈출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과 4일 무장 요원들의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자력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코하람은 지난 4월 보르노주에서 여학생 200명 이상을 납치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미국과 영국이 전문가 팀을 파견해 수색·구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탈출한 60명 가운데 지난 4월 납치된 여학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역 자경단원 지도자 아지 칼릴은 "60명이 넘는 여성들이 보코하람에 납치됐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강제해 끌려갔다. 달아나려고 했던 4명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다. 그의 동료인 압바스 가바는 "소녀들은 보코하람 요원들이 담보로 자기의 군 병영 시설과 경찰 본부를 공격하는 동안 탈출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그동안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두 달여 전 치북 시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여학생 250여 명 납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납치된 여학생들 중 200명 이상은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납치된 소녀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기독교계는 "보코하람이 이전부터 기독교인 여성들을 납치해, 무슬림 남성과 결혼시켜서 강제로 개종하게 만들거나 성노예로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ISIL이 점령한 모술, 기독교인 1만명 피란

"모술이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모든 여성은 머리에 서발까지 완전히 가려야 하며, 여성은 일을 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모술 기독교

인들은 신앙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 인근에서 난민을 돌보고 있는 현지인 A목사는 최근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이 점령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A목사는 "아르빌로 피란한 모술의 난민들이 100만명에 육박한다"며 "이들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서 밤새 기다려야 하며 낮에는 섭씨 55도까지 치솟는 더위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ISIL의 과격성을 우려한다. 카심 아타 이라크군 대변인은 "ISIL의 국가 수립 선포는 모든 국가가 위협에 처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찰스 리스터 부루킨스 도하 연구센터 객원연구원도 "국제 지하드 운동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며 "국가를 초월하는 지하드 운동의 새로운 시대가 탄생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들의 잔인성은 악명이 높다. 지난달 29일 칼리파제 이슬람국가를 찬양한 직후 모술 인근 시아파 성지와 초기 기독교 교회당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을 폭파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모술의 19세기 도미니크회 교회에 불을 질렀다. 또 기독교인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가 받지 못하자 여성들을 강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술 인근의 한 마을에서만 지난달 1만명의 기독교인이 쿠르드족 차지 지역으로 피난했다고 유엔난민기구가 전했다.

기독교 매체 CBN뉴스는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의 작은 마을인 알코쉬에도 기독교인이 피신했다"며 "이들은 모두 ISIL의 공격을 피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코쉬는 모술에서 동남쪽으로 45km 떨어진 곳이다.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아 오래 머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2003년부터 내전과 전쟁 속에서 압박받고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고국을 떠났고 그나마 자기 땅을 지키며 살아간 '최후의' 기독교인들마저 이제 위협받고 있다. 모술은 한때 100만명의 기독교인이 거주했다. 수도 바그다드 다음의 경제 중심 도시로, 구약성경 요나 선지자의 배경이었다. 이라크의 기독교 분파는 2000년 초반까지 가톨릭이 75%, 정교회 20%, 네스토리우스교회가 5%이며 개신교(장

로교)는 극소수였다. 이라크 전체 기독교인은 2010년까지 50만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30만명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요셉 중동아프리카연구소장은 "이라크 기독교인은 ISIL이 지하드 세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에 위배될 경우 살해를 합리화한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선교회(오픈도어)는 "극단주의 무슬림은 크리스천을 2등 국민으로 강등시키고 무력한 '담미(dhimmi·이슬람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무슬림이 아닌 이등국민을 가리키는 말)' 계층으로 만들고 있다"며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역사의 본거지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미 아동 밀입국 막아야" 미 목사 등 주장

중앙아메리카(중미) 어린이와 청소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지난 1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를 수 영장이 달린 집 주인에 비유하며 "수영장 주변에 울타리를 치지 않아 이웃집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집 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며 "미 정부가 국경 경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은 중미 아이들을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히스패닉 복음주의 연합단체 NHCLC의 대표 사무엘 로드리게스 박사도 최근 중미 교회를 순회하며 "중미 어린이의 불법 월경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기독교매체 CBN뉴스를 통해 밝혔다.

미국인 100명 중 3명이 성소수자

미국인 가운데 성 소수자, 즉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발표된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CDC)의 국민건강면접조사(NHIS) 보고서에서 자신을 동성애자

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1.6%, 양성애자라고 간주한 사람은 0.7%였다.

'잘 모르겠다' 혹은 '기타'라는 답변은 1.1%였고, 나머지 96.6%는 통상적인 이성애자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내 성소수자의 인구 비중이 3.5~4%일 것이라는 그간의 추산과 차이를 보인다.

지난 한해 동안 미국인 3만3천5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연방 보건당국 차원에서 실시된 성소수자 현황 집계 중 가장 광범위하다고 평가된다.

호주인 10명 중 7명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호주인 10명 중 7명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동성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나라지만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기관 크로스벡텍스터가 호주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제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했던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며,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뉴질랜드나 영국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크로스벡텍스터는 밝혔다. 또 응답자의 77%는 집권 여당이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른 양심투표를 허락해야 한다고 답했다.

호주 집권 여당 대표이자 강경 보수파인 토니 애브츨리는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크로스벡텍스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전날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데이비드 라이언헬름 상원의원이 애브츨리에게 여당 소속 의원들의 양심투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의원들의 세를 모아 연방결혼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공개했다.

호주에서 최근 올림픽 수영 영웅인 이언 소프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공개하는 등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1 2014 기도성회

-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2일 ~ 15일 우리교회(김효경목사)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향우목사) (지동근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가버림 금식기도원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

-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동인 신세계교회(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

-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함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교회(서기명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

-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성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희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29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

- 9일 ~ 11일 명수대학교(김경덕목사)
15일 주흥교회(최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산교회(한기형목사)

7

-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

-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중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3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9

-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밀레시아시 KL중앙교회(이종일목사)
21일 ~ 23일 오병이교회(김형재목사)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0

- 3일 ~ 5일 예루렘교회(류병희목사)
6일 ~ 9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미국)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30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11

-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5일 인천 대은교회(정영구목사)
15일 ~ 18일 신광교회(김성민목사)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9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

- 2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2일 영원교회(리승철목사)
4일 ~ 7일 GST 30th 신학생훈련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7일 화명교회(이재욱목사)

3

- 3일 ~ 6일 청일교회(박여호수목사)
10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산남교회(김병현목사)
31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

- 7일 ~ 9일 월평동신교회(조은일목사)
11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5

- 3일 ~ 5일 과천교회(주원신목사)
6일 ~ 9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광명순복음교회(하용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30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

- 3일 ~ 5일 예루렘교회(류병희목사)
6일 ~ 9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미국)
24일 ~ 26일 가나안교회(김익철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7

-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5일 인천 대은교회(정영구목사)
15일 ~ 18일 신광교회(김성민목사)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9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8

-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산곡기도원(한기재목사)
2일 ~ 4일 신광교회(김대석목사)
5일 ~ 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6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2일 ~ 15일 GST 31th 신학생 여름훈련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

- 1일 LA 미주 평화교회(김은목사)
2일 ~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9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0일 새침교회(이정수목사)

10

- 1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1일 ~ 2일 새침교회(이정수목사)
5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7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남서중앙교회(여찬근목사)

11

-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일 LA 미주 베이커스필드교회(지동근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29일 동양교회(김종열목사)

12

- 4일 ~ 6일 일일교회(원성목사)
10일 창대교회(최용도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0일 대진 성남교회(정민영목사)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

- 13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30일 과천교회(주원신목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0)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De Standaard지의 편집인과 주필

1872년 스탠다드(De Standaard)지는 일간지로 출발했다. 카이퍼는 이 신문사의 편집인 및 주필로 책임을 맡았다. 스탠다드지는 반혁명당의 기관지이기도 했다. 카이퍼는 이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반혁명당(Anti-Revolutionaire Partij) 곧 기독교 정치의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계몽을 했다. 카이퍼는 당 총재로서 일간지 편집주간을 계속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더구나 그는 주간지 헤라우트지의 편집과 논설을 같이 쓰면서 말이다. 이것은 천재적인 신학자요 문학가요 칼빈주의 사상가인 카이퍼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스탠다드지는 카이퍼의 입이고 손이었으며, 그가 정치 지도자로서 기독교 정치에 이론과 실재를 쌓고 당권과 정권 창출을 하게 된 동기가 된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카이퍼는 이 신문 글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방어하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성경적 기독교의 부흥을 꾀했다. 더구나 세속화된 사회에서 경건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외쳤다. 일간지 발행은 카이퍼의 오랜 숙원이었다. 국민들에게 좀 더 빠르게 카이퍼 사상과 삶 그리고 보도를 보내기 위해서 주간지 헤라우트지로는 한계가 있었

다. 그래서 카이퍼 주도하에 일간지 스탠다드지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카이퍼는 주간지 헤라우트지를 갖고 있는 터라, 일간지 스탠다드를 매일같이 내고, 헤라우트지는 토요일마다 스탠다드지의 주간 신문으로 나오게 되었다.

일간지 발행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카이퍼 박사는 양쪽 신문의 편집장을 겸임하겠다고 동의했다. 카이퍼의 그런 결정은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대 성공이었고 교회와 정치와 신앙생활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심

는 일에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 카이퍼는 1872년 4월1일 스탠다드지에 첫 번 논설을 발표했다. 첫 번 사설에서 카이퍼는 이 일간지 신문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

다. 사실 신문 발행일을 그날로 잡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한 것은 전략적인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1872년 4월1일은 300년 전 스페인과 80년을 전쟁 중에 화란이 대국 스페인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이었다. 이 위대한 승리의 날은 국민이 그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고 전 국민적이고 애국적인 열정이 최고조에 달할 그날을 택해서 스탠다드지를 발행했다. 이는 매우 상징적 이면서 개혁주의 성도들과 반혁명당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사람들 중에는 카이퍼가 일간지와 주간지의 편집과 주필로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염려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그는 이 작업을 5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뜬히 해냈다. 더구나 당의 총재로서 하원의원으로서 수상으로서 각종 설교와 강연의 그 바쁜 틈에서도 카이퍼는 흔들림이 없이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의 초인적인 저널리스트로서의 활약은 하늘이 준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본래 스탠다드지는 그보다 2년 전인 1869년에 일간지 "기독교적 국가"(Christelijk Nationaal)라는 타이틀로 발행되고 있었으나 제정문제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자

의 논설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 국민적 실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주장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허물과 죄로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안내자라고 했다.

1873년 10월29일자 스탠다드지 논설을 통해서, 기독교 정치가로서의 카이퍼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여금 그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시대의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화된 원리를 주장하였다. 기독교인의 양심도 성경에 기초하며, 기독교적 정치적 영성과 감각도 결국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카

를 배제하고 성경적이며 신본주의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화란 역사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했다. 과거 종교 개혁자들 일구어 놓은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은 우리시대의 합당한 형식으로 항상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 카이퍼의 지론이었다.

첫 번째 원리는 정치개혁을 하고 민족적 양심을 일으키고 독재에 대항하려면 그것은 개혁주의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혁의 개념으로서의 개혁사상이란 과거지향적 수구적이지 않고 항상 성경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러므로 주권적 권위의 원천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진원지를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국민 주권론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앞세웠다.

두 번째 원리는, 결국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선언했다. 사실 이 원리는 로마서 13장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오렌지 왕가의 경우처럼 정치적 주권을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 지도자에게 위임했다고 했다.

세 번째 원리로서, 정치적 영역에서조차 반혁명주의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구불변의 원리로 고백하는 것이다. 즉 성경이 정치에 있어서 규범이 된다는 것을 고백했다. 카이퍼는 성경을 정치의 원리로 삼되,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호소하면서도,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민주적이고 합헌적 태두리 안에서 정치를 하도록 격려했다. (9면으로 계속)

스탠다드지 통해 기독교정치 이론과 실제 쌓고 정권창출 동기 삼아 반혁명운동은 정부통치권이 하나님 은총에서 온다는 통치원리 고백

다. 그래서 카이퍼 주도하에 일간지 스탠다드지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카이퍼는 주간지 헤라우트지를 갖고 있는 터라, 일간지 스탠다드를 매일같이 내고, 헤라우트지는 토요일마다 스탠다드지의 주간 신문으로 나오게 되었다.

다. 사실 신문 발행일을 그날로 잡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한 것은 전략적인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1872년 4월1일은 300년 전 스페인과 80년을 전쟁 중에 화란이 대국 스페인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이었다. 이 위대한 승리의 날은 국민이 그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고 전 국민적이고 애국적인 열정이 최고조에 달할 그날을 택해서 스탠다드지를 발행했다. 이는 매우 상징적 이면서 개혁주의 성도들과 반혁명당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카이퍼가 이를 인수해서 반혁명당의 기관지와 일간지로 발전시키고 기존의 헤라우트 주간지는 일간지 사이에 발행하는 것으로 했다.

스탠다드지가 카이퍼의 손에 들어오자 일간지는 활력이 살아나고 부수가 늘어나고 재정문제가 해결되고 칼빈주의적 세계관 건설은 물론이고 반혁명주의 사상 전파에 최전방에 서게 된 것이다. 스탠다드지를 통해서 카이퍼는 반혁명의 원리와 정책 입안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깨웠다. 카이퍼는 스탠다드지

이퍼에게 있어서 신문의 글, 즉 매일 쏟아내는 사설은 바로 반혁명당의 사상과 삶 그리고 진로를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1879년 4월3일 사설에 쓴 반혁명주의의 계획서는 21개조의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전반부 5개 조항은 근본 원리인데, 카이퍼는 여기서 개혁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카이퍼가 천명한 반혁명주의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이 개요 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반혁명운동 즉 철저히 인본주의 요소

가정사역 칼럼



외도시 해서는 안되는 것들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들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충실한 배우자는 마치 칼에 베인 것 같은 가슴 아픈 고통을 겪게 되고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진다. 남성이건 여성이건간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일생에서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충실했던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더욱 더 싸울 일이 많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 다음의 내

용은 외도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다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헨리 버클러가 기술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적어 보았다.

배우자 외도 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 현재의 위기가 당신의 삶 전체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2. 당신의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
3. 정말 필요한 사람 외에는 배우

자의 외도에 대해 알리지 말라.

4. 부정한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라.
5.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와 같은 무력한 의존 상태로 무너지지 말라.
6. 좋은 짝이 되어 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말라.
7. 배우자의 연인에게 가서 싸우거나, 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에게 공격을 가하지 말라(보복은 배우자가 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만

을 자극하여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더욱 벌어지게 한다).

8. 남편이 애인과 함께 도망을 가도 당황하지 말라.

9. 맞바람을 피거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라.

10. 화장이나 새로운 복장, 다이어트의 시도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라.

11. 당신의 배우자에게 결혼의 서약을 언급하며 불잡아 두려고 노력하지 말라.

12.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배우자에게 결혼생활을 회복시키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성급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최후의 통첩을 하지 말라.

13. 변호사를 고용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혼담당 변호사들은 부부들로 하여금 양심을 품도록 부추기고 종종 불화에 불을 붙인다. 각 사람의 변호사들이

부부 간의 싸움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정말 다른 방도가 없을 때만 변호사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지불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하는 과정을 길게 함으로써 변호사의 수임료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두 부부의 재산의 절반을 변호사가 갖게 되고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 갖게 된다고 한다. 아울러 때론 두 사람의 은밀한 사생활은 환히 드러나고(예: 심지어 집안의 시시콜콜한 비밀들, 성생활의 횡수 등)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날 때까지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진행되고 부부는 지치게 되며 마지막 남아있던 배려나 존중의 마음은 적대감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마지막까지 합의를 볼 수 없을 때는 그때 가서 변호사를 고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 피해자인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외도관계를 청산하지 않을 시에는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남편은 외도관계를 청산하게 된다. 하지만 너무 쉽게 관계가 회복되리라 기대하지 않도록 하라. 특히 신중한 생각 없이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변화를 주지 말라. 외도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풀이하여 묻기보다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울 경우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가정 상담자를 찾도록 하라.

배우자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다 건강한 자신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거나 상담자의 도움을 구하여 자신의 삶을 추스리도록 하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기독교 이단 대책 세미나

일시: 2014년 7월 24일(목) 오후 7시

장소: 나성 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

2525 James Wood Bl., LA, CA 90006

전화: (213)487-3920

강사 이인규 (대림감리교회) 약력

-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연구위원
- 사이비종교피해자연맹 이단상담소장
- 이단상담아카데미 전문강사
- 현대종교 및 교회와 신앙 이단상담자문위원
-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대표
- 기독교이단대책협회 전문위원
- 한국기독교이단상담협회 전문위원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원

후원: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크리스천 투데이, 크리스천 헤럴드,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미주 복음방송, 미주 기독교 방송



목회서신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2011년 11월11일, '11111'은 천년에 한번 오는 '밀레니엄데이(Millennium Day)'였다. 이 날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첫째는, '밀레니엄 뱀뱀로데이' 사건이다. '뱀뱀로데이'는 11월 11일의 숫자 1 네개가 뱀뱀로를 세워 놓은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벨런 타인데이처럼 연인들 사이에서 뱀뱀로를 선물로 주고받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기념일이다. 그런데 뱀뱀로의 제조사인 롯데제菓가 2011년 11월11일이 천년에 한 번 오는 "밀레니엄 뱀뱀로데이"라고 판촉을 위해 홍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산

모들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첫째', '옴' 등 좋은 의미가 있는 1이 여섯 번 반복되는 '111111'이 되게 하려고 출산일을 앞당겨 제왕절개 수술예약이 평소보다 20-30% 정도 늘어났고, 대형마트의 유아용품 매출이 크게 신장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같은 날 2011년 11월11일, '11111'에 파사디나 로즈볼 경기장(Rose Bowl Stadium)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저녁9시까지, 미국교회 주도로 10만 명 다민족 성도들이 모여 미국의 성적, 도덕적 부패와 영적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가졌다. 문제는 전날 일기에

보에 비가 올 확률이 50% 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각성을 위하여 다민족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웬일이란 말인가?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새벽기도에, 기도은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한 표정으로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이에 응답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는 다 비가 오더라도 '파사디나 로즈볼 경기장'에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한인교회 집중기도시간

인 저녁 6-9시에 맞춰 교인들을 뱅에 태우고 프리웨이를 가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준비는 했지만 기도를 못할까 걱정하면서 '파사디나 로즈볼 경기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미 만명 이상의 한인교인들과 수만 명의 다민족 교인들이 모여 있었다. 프리웨이를 올 때는 분명히 비가 쏟아졌는데, 여기에는 비가 오지 않은 게 신기하게 여겨져, 경기장 주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았더니 붉으스름한 구름의 막이 경기장 주변을 천막을 쳐놓은 듯 했다. 저녁 7시가 넘어 피날레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인도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식으로 기도하겠다고 선포하고, '주여! 삼창'으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곳에 참석한 미국과 다민족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저들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한인교인들과 함께 '주여! 삼창'을 따라했다. 십여 명의 한인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릴레이식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공통적 결론은 미국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만사가 허사며 끝장이라는 것이었다. 필자도 이에 공감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며 미국의 회개를 기도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깜짝 놀랐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니 옳은 말씀이었다. 남가주에 1,300교회 세워진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남가주에서 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자녀교육과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노라 내 하나 믿음생활도 제대로 못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생활도 하지 못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불순종하면서도 회개생활을 하지 못한 우리 자신부터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교회와 선교사들의 피의 순교와 헌신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보은으로 마땅히 미국을 위하여 기도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마땅히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예와 감투, 교회성장에만 급급했던 우리 목사들부터 먼저 회개하자! 미주 한인교회와 교인들도 회개하자! 그리고 싸우지 말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이제 미국을 살리는 일에 한인교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자. 미국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미국의 재앙이 곧 우리가 같이 받을 재앙이며, 미국의 멸망이 곧 우리의 멸망을 잊지 말자!

교를 나와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하겠는가. 우리 글로벌선교교회에서는 영성교육에도 힘을 기울이며 미국 랭킹 50위에 속하는 대학에 진학할수있도록 개런티 할 수 있다. 원래 대안학교는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됐지만 개념을 확대해 국제화에 특별히 된 글로벌선교교가 된 것"이라며 미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현재 글로벌선교교회는 충북 음성과 경북 문경에 제 1, 2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이 학교 교과과정은 국어, 국사를 제외한 모든 영역으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부도 만들었다. 특히 야구부는 지난해 전국 4강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펜실베이니아에 전지훈련을 오기도 했는데 이때 챔버스버그에 소재한 본 학교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교섭에 나서 50년간 리스를 얻고 캠퍼스를 오픈하게 됐다. 펜실베이니아 캠퍼스 시범개교는 2014년 가을학기에 시작한다. 또 한, 성구 운영은 2015년 가을학기부터, 선발 대상은 미주지역 학생 50명, 한국 및 외국인 학생 50명을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213)369-3112 최천식 목사에게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한기총 대표회장에 한기홍 목사 취임

제16회 총회, 세미나, 집회...차기회장 최낙신 목사

미주한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대표회장 임형태 목사) 제 16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저녁 성회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10일 저녁성회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됐다. 수요일 오후 임형태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 16회 정기총회는 미기총기 입장(기수: 총무 심평중 목사), 증경회장 송정명 목사의 개회기도, 상임 회장 김동욱 목사의 새 회원들 소개 및 환영 후 서기의 회원점명에 이어 대표회장으로 한기홍 목사를, 최낙신 목사를 수석공동회장이자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 8일 오후 3시에 임형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한국의 한국교회연합회(한교연) 초대회장인 김요셉 목사가 '여호와를 송축할 이 유'(시103: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고 황의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번 총회기간에는 각 주체별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는데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건강한 미주한기교회의 진단과 처방', 김선배 목사(PCUSA총회 민중부 한인교회 담당총무) '살



제16회 미기총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림을 선포하는 미주한인 이민교회의 선교적 사명', 윤사무엘 목사(감람산교회) '회복의 신학, 언약과 사랑', 조갑진 목사(서울신대 신약학 교수, 국가기독교운동 대표) '주님의 교회여 일어나라'의 제목으로 각각 강연했다. 또한 2회 장한 크리스천 시상상을 통해 △목회자 시상-김선배 목사, 최고선 목사(NYSKC 대표회장) △미디어 시상-이종문 목사(ISTV, 예수방송 대표) △선교사 시상-정은실 목사(볼리비아 우세볼대학교 총장) △평신도 시상-김유봉 장로(뉴저지 한소망장로교회)가 수상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이어 공천위원회가 회장단과 임원단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 △수석 공동회장: 남부 최낙신 목사 △지역 공동회장: 동부 전영현 목사, 서부 박용덕 목사, 중부 영영일 목사 △사무총장: 윤사무엘 목사 △총무: 박병섭 목사 △서기: 심평중 목사 △부서기: 박형우 목사 △회계: 민경엽 목사 △부회계: 이대우 목사. 이외에도 각 분과위원장을 확정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글로벌선학교, 국제대안학교로 발돋움

펜실베이니아주 챔버스버그 제 3캠퍼스 마련



글로벌선학교 제 3 캠퍼스 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한국 제천과 문경 두 곳에서 미래 지도자를 기르는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명문학교로 크게 성장한 글로벌선학교(설립이사장 남석진)가 펜실베이니아주 챔버스버그에 제 3캠퍼스를 오픈한다. 지난 9일 정오 옥스퍼드 호텔에서 학교 스텝진들은 글로벌선학교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동부에 설립될 제 3캠퍼스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민병용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돼 국민의례, 한기홍 목사의 기도가 있는 후 행사 취지와 함께 글로벌선학교 소개와 미국 캠퍼스의 전경을 담은 동영상을 관람했

다. 이어 남석진 설립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대안학교로 세워져 지금의 명문학교로 자리 매김된 글로벌선학교에 대해 소개했다. 남석진 목사는 "인재가 모이는 이곳 미국에서 세계의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 학문을 쌓을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제 3 캠퍼스의 건물은 1달러도 주지 않고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앞으로 50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 미국교육과 한국교육을 잘 조화시켜 가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별히 사교육이 없도록 디자인했다. 아무리 좋은 학

교를 나와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하겠는가. 우리 글로벌선학교에서는 영성교육에도 힘을 기울이며 미국 랭킹 50위에 속하는 대학에 진학할수있도록 개런티 할 수 있다. 원래 대안학교는 학업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됐지만 개념을 확대해 국제화에 특별히 된 글로벌선교교가 된 것"이라며 미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현재 글로벌선교교회는 충북 음성과 경북 문경에 제 1, 2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이 학교 교과과정은 국어, 국사를 제외한 모든 영역으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부도 만들었다. 특히 야구부는 지난해 전국 4강에 올랐다. 이를 계기로 펜실베이니아에 전지훈련을 오기도 했는데 이때 챔버스버그에 소재한 본 학교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교섭에 나서 50년간 리스를 얻고 캠퍼스를 오픈하게 됐다. 펜실베이니아 캠퍼스 시범개교는 2014년 가을학기에 시작한다. 또 한, 성구 운영은 2015년 가을학기부터, 선발 대상은 미주지역 학생 50명, 한국 및 외국인 학생 50명을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213)369-3112 최천식 목사에게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CCM 루키 오디션 콘서트에서 참가자와 심사위원 및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4 CCM루키 오디션 콘서트

대상에 지구촌교회 이하나 자매

2014 CCM루키 오디션콘서트 미주 본선무대가 CCM ROOKIE USA 주관으로 12일 오후7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오디션에는 예선을 거쳐 올라온 10명이 경연을 펼쳤으며 영예의 대상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부른 지구촌교회 이하나 자매가 차지했다. 이하나 자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고 운을 떼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많았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찬양을 기뻐한다"라는 응답을 주셨다. 그 응답에 용기 얻고 매 순간 순종했다. 기도할 때마다 대화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박준호 기자>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지난 6월 25일 예선으로 열린 유튜브 오디션에 통과된 10명이 3팀으로 나누어 2주간 멘토의 지도를 통해 본선무대를 준비했다. 멘토에는 한인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프로듀서 겸 편곡 및 연주자 랜디김, 김진수, 브랜던정씨가 참여했다. 대상을 차지한 이하나 자매는 한국 CCM ROOKIE 본선 출전하게 되며, 한국본선을 위한 왕복 항공권, CCMROOKIE USA 기념음반 제작 기회 및 트로피, 상장 및 부상을 받았다. 또한 대상과 금상은 원하트미니스트리의 찬양사역자로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음반제작도 하게 된다. 다음은 2014 CCM루키 오디션콘서트 수상자 명단이다. △대상: 이하나(지구촌교회/멘토 랜디김) △금상&로켓기획특별상: 김용훈(나성영락교회/멘토 브랜던정) △은상: 양지아(Restoration Church/멘토 랜디김) △동상: 윤요한(나성순복음교회/멘토 김진수) △지저스홀릭 특별상: 백수진(샌디에고 베델교회/멘토 브랜던정)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터티 중앙아시아 3지부 발족

지부장 정구현 선교사 "좋은 결실에 최선을"

소망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제3지부 중앙아시아 발족식을 9일 오전 11시 소망소사이터티 소망홀에서 열었다. 발족식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구현 선교사를 지부장

으로 임명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 소사이터티에서는 훌륭하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정구현 선교사에게 제3지부를 맡기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지부장 임명장

을 받은 정구현 선교사는 "지난 22년 동안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해왔다. 이번에 소망 소사이터티와 일하게 돼 감사하고 기쁘다. 좋은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망소사이터티는 LA에 제1지부(지부장 샤론김)를, 제2지부(지부장 김광근 목사)는 버지니아에 발족시킨 바 있다. <박준호 기자>



APU입학설명회가 LA리저널 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변명혜 한인식사과장 디렉터가 진행하는 모습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입학설명회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웰레스 박사) 입학설명회가 14일 오후 6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LA리저널센터에서 열렸다. 변명혜 박사(본교 한인사과장디렉터)의 사회로 시작된 입학설명회는 도널드 브라운 박사(본교 LA리저널센터 디렉터)의 환영사, 변명혜 박사가 한인식사과정 소개, 다니엘 뉴먼 박사(한인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가 한인목회학박사과정 소개를 했다. 이어 졸업생과 재학생이 나와 이날 방문자들에게 추천의 말을 전했다. 본교 M.Div. 졸업생인 심경준 전도사는 "APU는 복음만 전하려는 교

수님들에게 배우면서 순수한 신학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초교과 신학교라는 장점이 있어 졸업 후에 교단에 관계없이 사역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들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학생들 간에도 여러 교회, 교단적 백그라운드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정산 학우는 "APU에 입학하기 전 여러 학교를 알아봤고, 여러 목회자들과 교수들의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모두들 자신들이 재학했던 학교를 추천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APU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또

한 사역현장에서 느끼는 고민들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사역현장에서 겪은 것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재호 학생회장은 "APU에서 4학기째 공부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학교에 대한 문의 받게 된다. 이곳에 만난 학우 선생님을 복음적 가르침과 실제적 삶에 적용하는 훈련 진행되고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역사하심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의 시간이 마친 후 이날 참석한 자들이 학교관계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7면에서 계속) 네 번째 원리는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민의 영적 성장 문제는 정부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동원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영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들과 종교단체들과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권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스탠다드지를 통해서 반혁명운동은 정부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맡김이었다는 통치 원리를 고백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치의 원리를 제창한 개혁주의 원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흐룬과 카이퍼는 요한 칼빈의 전통을 따랐는데, 성경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이 되고 등이 되며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소망소사이터티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3지부 발족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부교계 기사판



“믿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뉴저지교협, 2014 호산나복음화대성회 개최

제 3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및 선교사대회
제 3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및 선교사대회는 10월 필라델피아(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문의: (610)267-0484

뉴욕목사회 이단대책 세미나
뉴욕한인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대책 세미나가 오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문의: (917)862-0523

창작클리닉 7월 모임
창작클리닉(대표 박상희 권사)이 주최하는 7월 시와 문학예술작품 및 강좌가 오는 26일(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뉴욕한인문화센터(KCS) 강당(35-56 159 St, Flushing)에서 열린다.

▲문의: (646)283-5658, 241-3747

퀸즈한인교회 설립45주년 기념감사예배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오는 27일(주) 오후 5시 기념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718)67201150

살롱장로교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성료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주최한 여름어린이성경학교(VBS)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3배 가량이 참석한 이번 VBS는 찬양으로 시작해 설교를 듣고 반반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점심과 간식은 학부모들이 준비했으며 마지막 날 오후에는 교사와 학생 전원이 Discovery Place를 견학하며 현장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부터 함께 자리하며 어린이들과 교제를 나눴던 담임 나성균 목사는 “이번 여름어린이성경학교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전문가들과 청년 교사들 그리고 종교 등 부보교사들을 비롯해 온 교우들이 현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기독교 부흥운동의 확실한 방법인 4/14 무브먼트를 펴는 기간이었다”며 “진짜부터 실행해야 할 일이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동욱 목사)가 주최한 제 26회 호산나복음화대성회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드와이트로 고등학교에서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됐다.

뉴저지 교협은 올해부터 대회를 ‘호산나 전도대회’에서 ‘호산나복음화대성회’로 바꿨으며, 주제는 “믿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로 정했다.

호성기 목사는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진 목회자로 PGM(세계전문인선교대회)을 설립하고 국제대표, KIM-NET(세계한인선교동역네트워크) 회장, KWMC(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회장 등 디아스포라 선교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첫날 호성기 목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회복하라!”(마17:14-20)라는 제목으로 “믿음은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둘째,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믿는 것



호산나복음화 대성회에서 호성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원로목사회 7월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7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7월 월례예배가 지난 8일 뉴욕 성서교회(담임목사 김종일 목사) 초청으로 선전메도우 파크에서 열렸다.

예배는 회장 소의섭 목사의 인도로 김용욱 목사의 기도, 임지웅 목사의 클라리넷 독주, 김종일 목사의 설교, 김수현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를 맡은 김종일 목사는 “선배목사님들의 뒤아든 터 위에서 현재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돼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하 드린다”고 전한 뒤 “가장 좋은 설교는 ‘은혜 많이 받

았다’는 인사를 듣는 것보다 참 좋은 예수님, 혹은 참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는 인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설교”라고 말했다.

김종일 목사는 “오늘이 있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며 간증을 통해 말씀을 전했다.

회원들은 이순덕 권사(찬양사역자)의 인도로 찬양과 축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해변을 걸으면서 모처럼 야외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돼 모두 만족한 시간을 가졌다고 치하했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강조하며 영접의 시간을 가졌다.

호 목사는 둘째 날 “믿음의 과정인 순종을 회복하라”(행12:1-12), 셋째 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행8:1-8)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사흘간의 호산나복음화대성회 사회는 허상희 목사 장문선 목사 안성훈 목사, 기도 이상일 목사 윤명호 목사 이병준 목사, 성경봉독 이경민 목사 장문선 목사 최재형 목사, 헌금 기도 박정희 목사 이은희 목사 이은혜 목사, 축도는 안명훈 목사 양준길 목사 유재도 목사가 맡았다.

찬양과 경배는 뉴저지만나교회와 소망장로교회가 담당했으며 찬양은 뉴저지만나교회, 필그림교회, 베다니교회 찬양대가 썼다. 헌금특송은 뉴저지권사합창단, 뉴저지장로성가단, 뉴저지목사합창단이 썼다.

(정리: 유원정 기자)



지난 8일 가든노회 임시노회에서 선출된 임원들.

KAPC 가든노회 첫 임시노회 노회장 조문선 목사 등 임원 선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손한권 목사)에서 분립된 뉴저지메트로노회가 ‘가든교회’로 명칭을 정했다.

가든노회는 지난 8일 오후 분립 후 첫 예배를 드렸으며 당일 임시노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회장 조문선 목사(뉴저지개혁장로교회) △부노회장 이원호 목사(중부뉴저지장로교회) △서기 조성훈 목사(뉴욕제일장로교회) △부서기 박형기 목사(행복한교회) △회록서기 이종식 목사(좋은땅교회) △회록서기 이준성 목사(양무리교회) △회계 김충남 장로 △부회계 허철회 장로.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의 설교는 총회장 정관일 목사가 창세기 37:5-6, 18-19절을 본문으로 “새 노회 새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총회서기 최동진 목사의 사회로 총무 공재남 목사의 기도 후 설교경위보고 총회서기, 가든노회 설립공포 총회장, 축사 조영길 목사, 축도 정관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가든노회는 첫 임시노회를 열고 공천부 부장 김두해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가 사임보고 및 임원 발표를 했다. 회의는 노회장 조문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가든노회)

눈물과 감동의 3대에 걸친 모녀 이야기

극단 MAT 창작뮤지컬 “엄마 엄마” 공연

뮤지컬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인 극단 MAT의 세 번째 정기 공연작인 창작 뮤지컬 “엄마 엄마”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플러싱메도우코로나 파크 내의 퀸즈극장에서 공연됐다.

“엄마 엄마”는 3대에 걸친 모녀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로, 기독교 한인사회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수준 있는 작품이었다. 송태경 공동대표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에 주어진 시련과 신의 양면으로서 깨달아야 할 그리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시련의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담아보려고 했다”고 말하고 “진한 감동과 웃음을 통해 삶의 문제를 생각하게 해줄 수작”이라고 소개했다.

작품은 임흥주 공동대표가 쓰고 곡은 황진경 음악감독이 맡았으며 출연진으로 최유진, 박지은, 이은정, 박영진, 윤미나, 강현주, 최훈민, 김동주 등 화려한 경력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며 특히 아나운서 겸 배우 임성진이 특별출연했다. 극단 MAT는 뉴욕에서 활동하던 성서뮤지컬 전문극단 ‘여디디아(대



극단 MAT 창작뮤지컬 “엄마 엄마” 공연 모습

표 송태경)와 연극전문인들의 극단 ‘메타 퍼포먼스 그룹(대표 임흥주)’이 2011년 통합 창단해 첫 작품 ‘자화상’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두 번째 작품인 ‘6개월 클럽’을 공연했다.

이 작품은 올 봄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공연한 바 있

으며 뉴저지교협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MAT는 원하는 개 교회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다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는 matmusicalcompany@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11/11/11 감동 다시...6만 다민족연합기도대회

11/11/14 엔젤 스타디움 'A Line in the Sand'

미국의 대부흥을 위해 부르짖었던 11/11/11 로즈볼,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오는 11월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된다.

오는 11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오렌지카운티 애플하임에 위치한 엔젤스타디움에서 11/11/14 엔젤 스타디움 6만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열리게 된다. 이번 기도회는 지난 2011년 11월 11일 로즈볼 구장에서 열린 다민족연합기도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로즈볼 기도대회의 주최 측이 이번 행사도 맡게 된다.

주제는 'A Line in the Sand-모래위의 선'이며 주제가 주는 의미는 영적전쟁을 선포해 신성한 영역들의 최후보수가 돼 우리가 연합해 지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이 선을 건너가는 것을 포함한다. 참가인원은



11.11.14 엔젤 스타디움 6만 다민족 연합기도대회 설명회에서 박희민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주최측과 한국교회 주도로 150여 다민족과 한인 등 총 6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최 및 주관 단체는 11/11/11 로즈볼 다민족기도대회와 10/27/12 웨이스돔 다민족기도대회를 한국교회와 함께 개최한 바 있는 300여 명의 지역별 목회자기도회 대표, 정

부지도자, 사업가, 전문가, 그리고 각 선교단체와 중보기도 그룹 리더



낮은울타리 LA본부 주최 토크콘서트에서 신상언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회복 결과, 성경적 세계관 형성"

낮은울타리 LA본부 주최 토크콘서트

낮은울타리 LA본부(본부장 이은수 목사)가 주최한 토크콘서트가 8일과 10일 미주복음방송 4층 세미나실에서 신상언 문화선교사(낮은울타리 대표)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신상언 선교사는 "낮은울타리 사역은 다음 세대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사역이다.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으므로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나'라는 개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중심, 가치중심, 율법중심의 삶으로 변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A Line in the Sand 캘리포니아 니스닝 팀이다.

참여단체는 남침례교회, 아미쉬, 메노나이트, 장로교, 영국성공회, 메시아니즘이시교회 등을 비롯한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나라들의 교회들과 캘리포니아 다민족 교회들, 그리고 250여 중보기도 단체들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리는 기도회의 한인인도 기도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이며 미기초, 남가주교회, OC교회, 남가주목사회, OC목사회, KCCC, JAMA, 남가주청년목사회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문의: (626)372-5151/전두승 목사, (310)995-3936/강순영 목사.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한여름 성령축제에서 강사로 나선 원팔연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은혜한인교회 한여름성령축제, 강사 원팔연 목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한여름 성령축제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8)라는 주제로 8일부터 10일까지 전주 바울교회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수요일 저녁에 열린 둘째날 집회에서 원팔연 목사는 '선민이여 꿈을 가집시다'(창37:4-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원 목사는 "한세상 왔다 사라지는 인생, 바람부는 대로 세월 따라 살지 말고 선민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인들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웅대한 꿈을 품고 세상을 살아야한다. 모두가 꿈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흘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부터는 굶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자"고 말했다.

원팔연 목사는 첫날 저녁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창12:1-9), 목요일 저녁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딤후2: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들 애환 구직, 고독, 외로움 순 생명의전화 4-6월 통계, 여성이 남성의 2.5배

한인동포들의 가장 큰 애환은 구직, 고독,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생명의전화(대표 박다윗 목사)가 발표한 4-6월 전화상담을 통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인동포들이 겪고 있는 애환으로는 총 658건 중 구직이 98건, 고독과 외로움이 77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결혼(이혼) 문제가 39건, 인간관계와 신앙문제(이단)가 38건, 정신 정서장애(의처증)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남성이 160건, 여성

이 418건의 전화상담을 했으며, 남성중에는 구직문제가 30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고독과 외로움이 21건, 감사와 격려전화가 19건, 정신, 정서장애(의처증)가 14건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구직이 66건, 고독과 외로움이 56건, 인간관계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침묵전화가 80건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박준호 기자>

서 회복돼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첫날 오전 강의에서 신상언 선교사는 "회복"을 언급했다. 그는 "회복이란 생명을 얻는 자가 이해, 인식, 의존을 통해 첫째로 생명력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과정이고, 둘째는 타락하기 전 주님과 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며, 셋째로는 직업을 통해 상처가 은혜로 바뀌는 과정을 말한다. 회복의 결과로는 생명력과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선교사는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주님은 그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풍성한 생명력과 성경적 세계관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세계관은 삶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존해서 사는 것이며 그 생명은 십자가이자 사랑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상언 선교사는 화요일 저녁 '아버지를 위한 성경적 세계관 학교', 목요일 저녁 '당신의 자녀는 타민족입니까?(N세대 자녀와 대화하는 법)'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한 길로 가려무나' 출판감사예배

임지석 목사(나성세계로교회 담임)가 '한 길로 가려무나'(쿰란출판사)를 출간하고 31일(목) 오후 7시 나성세계로교회(300 S. Hobart Bl)에서 출판 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213)219-9229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문학신인상 시상식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윤)가 주최하는 제 28회 크리스천문학 신인상 시상식이 8월 9일(토) 오전 11시 작가의 집(2410 W. James-wood Bl)에서 열린다.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상 이매자(단편소설) △가작 송종목(시) 새별달, 김동욱(시) 들꽃 △당상 김일형(수필) 미국생호라의 터전 △예청목(소설) 양자의 사랑.
▲문의: (213)249-0771

Seeds of Worship 정기공연

Seed of Worship 어린이 청소년 찬양뮤지컬(단장 에스더박)이 7월 25일(금)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완전한 사람들'(Perfect People)이란 주제로 열린다. Seed of Worship 단원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창단과 현대예배, 찬양으로 진행된다. 입장 티켓은 10달러. 당일 입구에서 구입하면 된다.
▲문의: (714)904-8434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종교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31일(목)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며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참가비 무료.
▲문의: (213)738-3446 또는 jahn@dmh.lacounty.gov



LA연합교회 창립 8주년 감사예배가 13일 오전11시에 열렸다. 사진은 예배후 당회원들과 교인들이 케익을 자르는 모습

'자원하는 축복' 을 받으라!

LA 연합교회 설립8주년 감사예배

LA 연합교회(담임 고귀남 목사)는 설립 8주년 감사예배를 13일 오전 11시에 거행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고귀남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8주년 감사예배는 허연남 장로가 기도했으며 고귀남 목사가 '자원하는 축복'(고후8: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귀남 목사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 생각되는 것이 물질의 축복"이라 언급하며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마음속의 물질관이 잘 정립되어야 한다. 물질관이 잘 정립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원하는 마음은 첫째

성령 충만해야 하며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며 셋째 헌금의 참뜻을 이해해야 한다.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드러진 헌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연합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버질과 1과 코너에 자리하고 있는 LA 연합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기준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고귀남 목사와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8쿠바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장로교의 날... '한 교단 다 체제' 위해

한장총, 칼빈 생일기념 2009년부터 대회 개최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올림픽홀에서 제6회 '장로교의 날'을 개최하고 장로교의 화합과 일치를 도모했다. 존 칼빈(1509-1564)의 후예들이 장로교인들은 2009년부터 칼빈의 생일인 7월10일을 기념해 대회를 열고 있다.

김동영(예장 통합) 안명환(예장 합동) 주준대(예장 고신) 이주영(예장 합신) 총회장 등 26개 장로교단 총회장과 총무, 4000여명의 장로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는 축제분위에서 진행됐다. 각 교단을 대표하는 깃발을 든 기수단이 입장하자 함성이 터졌다. 대회장을 맡고 있는 유만석 한장총 대표회장이 "한국 장로교회의 하나 됨을 선언한

다"고 하자 큰 박수가 나왔다.

예배는 장로교 전통에 따라 입례, 예배의 선언과 기원, 경배의 찬송, 죄의 고백, 시편 교육, 설교, 평화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입례송 때는 27개 교회 찬양대원 67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장로교 연합찬양대의 웅장한 화음이 가슴을 울렸다.

메시지를 전한 장준원 예장 백석 총회장은 "빛과 소금의 장로교회"라는 설교에서 3만7000개 장로교회, 900만 장로교인이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회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소금이며, 세상의 윤리

나 도덕보다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선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의 역사를 멈추고 하나 되기에 힘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빛과 소금의 장로교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성령운동, 기도운동, 나눔운동으로 부흥하고 착한 행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교회회가 되자"고 독려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선교, 장로교회 일치를 위해 두 손 들고 기도했다. 성찬식은 참석자들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부르는 가운데 오정호 대전새로남교회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비전선포식에서 한장총은 성경 중심의 개혁, 십자가 아래서 연합,

복음화 된 통일조국 건설, 개혁신앙 계승, 세계선교 실천 등 7대 실천강령을 선포했다.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팸플릿에 인쇄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글씨를 펼쳐 보이며 제창했다.

한장총은 지난해와 달리 차세대 육성까지 표현과 격려 차원에서 일반 대학생과 신학생, 대안학교 학생, 초·중·고 기독교생 20여명을 무대로 초청해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로교회 하나 됨의 시간에는 26개 교단 총회장과 총무 등이 등단해 느슨한 형태의 장로교 일치방법인 '한 교단 다 체제'를 위해 손잡고 기도했다.

준비위원장인 황수원 예장 대신 총회장은 "예배가 장로교 형태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자리였다"면서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교회와 국가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는 데 공감한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교계 시민단체 거센 반발 "국가적 재앙"

김희정, 동성에 조장 '차별금지법안' 지지

김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성 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여가보다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차이나 성적 지향으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전과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에 대해 동성에 반대 단체들은 위험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0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김 후보자가 한낱 위원회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위법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김 후보자는 발언을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연합도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성 소수자들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동성애가 헌법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혼란과 무분별한 성 방조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동성애자들이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옹호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고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성 소수자 등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며 "내용이 왜곡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회개, 화합, 부흥'

대구 계명대서 전국대학교수 선교대회 개최

대구 계명대학교는 국내 대학 교수들의 최대 선교 모임인 '2014 전국대학교수 선교대회'(대회장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5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

스 아담스채플, 존슨홀 등에서 전국대학교수 선교연합회와 전국기독교수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이 땅을 고쳐주소서-회개, 화합, 부흥'이라는 주제 아래 전국 기독교인 교수 400여명의 참여해 열

기를 더했다.

행사 기간 동안 두레공동체운동본부대표 김진홍 목사, 세계선교공동체대표 이용남 선교사, 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 최윤식 교수, 평양과학기술대 김진경 총장 등 국내외 기독교 인사들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아우레다(Are you ready)'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 국내외 선교 사례 발표 등 다양한 강연과 행사가 진행됐다. 또 기도회와 찬양 공

연 등도 열렸다.

전국대학교수 선교연합회 송재기 회장은 "우리 기독교수들이 먼저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주님을 찾는 길만이 위기의 시대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이번 대회에 참석한 분들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캠퍼스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북 급속붕괴기대 버리고 교류방안 모색

미래목회포럼 11주년 "준비된 남북통일과 한국교회"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은 지난 11일 출범 1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준비된 남북통일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기념포럼을 열었다. 발제자들은 "북한이 급속히 붕괴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남과 북의 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반도 통일의 전망'에 대해 발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한에 내부 붕괴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다 중국이 적극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가 현실화해도 한국 주도의 통일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정책도 '북한붕괴론'에 기대지 말고, 김정은 체제가 적어도 10~20년 유지될 것이라는 장기적 안목에 따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현실에서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개성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선적인 현안들을 처리하며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에 대한 교회의 전략적 접근'에 대해 발제한 동북아한민족협의회 회장 양병희(서울 영안교회) 목사 역시 "북한이 쉽게 무너질 것이

라는 기대를 버려야"며 "북한과 지속적·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면서 상호 공감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목사는 "힘과 권력, 정치적 이념에 의지해 물리적으로 합치하려기보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약품이나 빵·국수 공장을 세우는 등 북한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통일 준비를 위해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할 과제로 '탈북자를 정착시켜 통일 역군으로 양성하는 것'과 '통일 헌금 준비' '교회를 조율한 통일 기도회 실시' 등을 제안했다.

안찬일 세계복합연구원 소장은 논찬에서 "솔직히 한국사회, 한국교회는 실제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고,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편"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주민들은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3대에 내려온 주체사상이 머리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독특함을 받아들이면서 탈북자를 돕고, 남북교류의 물꼬를 천천히 트면서 통일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감리교 평신도 1016명 설문조사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들은 감리교회에 높은 충성도를 보였지만 감리교단 파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회 최대 문제점으로는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다는 점을 꼽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감리교회 200곳, 평신도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기감이 평신도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벌인 건 처음이다.

스 아담스채플, 존슨홀 등에서 전국대학교수 선교연합회와 전국기독교수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이 땅을 고쳐주소서-회개, 화합, 부흥'이라는 주제 아래 전국 기독교인 교수 400여명의 참여해 열

10% 이상을 헌금한다고 답한 비율은 65.9%로 감리교 성도 10명 중 7명꼴이었다. 설문 결과 분석을 맡은 이원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개신교인 전체를 조사했을 때 심일조를 내는 교인은 절반 정도"라며 "감리교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순위	답변	비율
1	"영적 성장, 외형에만 너무 신경 쓴다"	37.2
2	"교회가 너무 많다. 단합이 안 된다"	24.4
3	"세속화가 문제. 세상 사람들과 다름 없다"	10.2
4	"성도를 생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 한다"	7.8
5	"목회자의 사려사욕과 이기심"	7.0
6	"선교사업을 통한 사면이다"	6.4
7	"지교회 개척과 교회 중심적이다"	4.9
8	"사회봉사나 구제사업을 통한 사면이다"	1.9
9	기타	0.2

(자료: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들은 감리교회에 높은 충성도를 보였지만 감리교단 파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회 최대 문제점으로는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다는 점을 꼽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감리교회 200곳, 평신도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기감이 평신도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벌인 건 처음이다.

◇감리교인은 누구인가=응답자 중 63.9%는 누군가의 전도도 감리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감리교가 모태신앙이었다가

나 스스로 감리교회를 찾아가는 비율은 각각 28.4%, 7.7%였다.

응답자 대다수는 감리교회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앞으로도 감리교회에 계속 출석할 것'이라는 답변은 97.2%에 달했다. 감리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묻는 질문에 '강하다' 혹은 '매우 강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절반이 넘는 61.5%였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유로는 '구원'(51.9%)을 꼽았다. '마음의 평안'(14.2%) '사후 천국'(8.2%)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회 만족도는 심일조 봉헌 비중에서도 나타났다. 월수입 중

◇"감리교단 파벌 문제 개선돼야"=교회를 향한 애정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감리교단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감리교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학연과 관계된 파벌'(23.7%) '과열된 감독 선거제도'(21.8%) '서클 중심의 교단 정치'(13.8%) '교계 지도자의 지도력 부재'(10.1%) 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감리교회의 당면 과제로는 '미자립교회 문제

월수입 10% 이상 헌금 65.9% 교단 가장 큰 문제 '파벌' 23.7%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벌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봉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엔교회</p> <p>담임목사: 진용태</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8:3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영양: 2월 10시, (8월) 2시 유니: 유년: 노부: 오전 10:00</p> <p>Tel. (508)422-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렉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덴버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형만</p> <p>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앵커리지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51)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새벽예배: 오전 11:00 주일영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찬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kpcsc.org</p>
<p>타코마 삼일교회</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새벽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만)</p> <p>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수명</p> <p>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2:00(말만)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536-8675, Fax. (253)474-8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말만)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www.kpcac.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p>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선교 편지

캄보디아

센터의 사역들은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는 그룹 학생들이 한달에 한번씩 새로 개척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새로운 마을엔 신학생 한명(Vuthy(위티))이 방학동안(3개월) 우선 영어를 가르치는 센터로 시작해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 나가기 전 훈련 받고 타코마 트랙에 저까지 22명이 타고 새로운 마을로 가서 세명씩 한 그룹이 되어 2시간동안 가가호호 방문 하고 돌아와 나누는 경험담들을 들으며 하나씩 감사드렸습니다. 7학년부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 21명이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아이들을 예배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전도로 크리스천이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자녀들을 보내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영어공부하러 보내어 매일 2-3명씩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시작된 수요일 어른 성경공부는 어린이용 크마에 그림성경(400페이지)을 사용하여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시작했습니다. 매 수요일 아침 7시부터 오늘은 몇 분이 오시려나 은근히 걱정하는 저의 작은 믿음이 부끄럽게 8분이 고정적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미리 집에서 성경을 읽어 오신 분들이 저의 설명에 혼수를 두어가며 더 설명해주셔서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들은 자신들이 결단하고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알기위해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성경의 줄거리를 알고 나서 어른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후에 있는 다과시간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며 이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읍니다. 감사한 것은 이 분들이 제가 대접하는 한국산 커피믹스와 현미

녹차를 아주 좋아해서 즐기신다는 것입니다.

수요 성경공부

한 가지 마음 정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1월에 세례를 받으신 헨 아저씨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센터와 담을 나누고 있는 이웃인데, 세례 받으신 이후 술도 끊으시고 주일예배, 수요 성경공부에 계속 참여하시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루는 술친구가 찾아와 술을 드신 후 취기에 아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고 아들은 그 다음날로 프놈펜 공장에 가서 일한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날 이후 헨 아저씨는 새벽 6시에 소를 몰고 산으로 가서 일하고 해가 저야 돌아와 이야기 할 시간도 없고, 그 주일엔 예배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가정일이라 주재님께 참견한다고 할까봐 며칠을 기다리며 상황을 보면서 사란 선생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이(9학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부모가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센터에 오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도와 주자고 의견을 모으고 아들이 돌아오도록 연락을 했습니다(아들 이름은 Peakday 페이크디에이로 아버지의 권유로 매일 저녁 성경 읽는 모임에 참석하고 주일예배에도 참석하기 시작한 학생입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헨 아저씨가 성경공부에 오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시30분 시작시간에 아저씨가 오셔서 끝까지 참석하시고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시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날 공부한 내용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신약의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반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누면서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대들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꼭 그렇다고 설명을 할 때 헨 아저씨의 눈가에 이슬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 아저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교회를 받치는 기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헨 아저씨를 위해 기도해주시요. (헨 아저씨는 위의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앉으신 줄무늬 셔츠를 입고 계신 분입니다)

마을에서 지낸 시간이 6년이 넘어가면서 센터와 우리 학생들을 넘어 이런 영어배우면서 예수 믿게 된 마을 학생들과 학생들 가족들, 예수님 믿는 이웃들, 믿지 않은 이웃들까지 다 품어 안고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들

답이 계속 쪼아 먹습니다. 새끼도 주지 않고 혼자서 먹나 싶어서 지켜보니 부리로 아주 조그맣게 잘라 새끼들이 먹을 수 있게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미물인 닭도 이렇게 모성본능으로 새끼들을 돌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지냅니다.

사역보고서

캄보디아 뿌레이 크찌어이 마을 사역

1. 마을 센터 기숙사 사역: 중고생 8명, 소 돌보는 학생 1명, 사란, 에스터 선교사 모두 11명이 살고

있다.

토요일 오후엔 프놈펜에서 대학 생들이 내려와 마을 학생들에게 컴퓨터(타이핑)와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 Devotion time: 매일 6-6:30 영어수업 후에 센터 학생들과 영어배우는 학생들 30명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해서 현재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며 배워서 이들이 신앙이 말씀에 기초해서 든든하게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 마을 교회: 매주 50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교회가 생기면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중 영어 클래스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주말 성경공부로 계속 이어져 이곳에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6. 뿌레이 마을: 센터에서 6km 동쪽으로 떨어진 마을에 신학교 3학년생인 위티 학생이 집을 세내어 영어 센터를 2013년 12월 26일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3개 클래스에 3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티 학생이 학교 공부 중엔 금요일에 마을로 내려와 사역하고 주일 오후에 학교로 돌아가고 방학 중엔 마을에 살면서 영어 교실과 기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 장학 사역: 현재 프놈펜 도시에서 공부하는 신학생 6명을 돕고 있으며, 일반대학생 10명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졸업생이 1명, 의대 졸업생 1명, 신학 대학생이 3명입니다. 일반 대학생 6명은 저와 같은 팀에 소속된 선교사가 담당하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신앙과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새로운 사역지가 잘 계속되도록.
 2. 에스터 선교사와 사란 선생이 영육 간에 지지치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마을 학생들과 어른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신앙이 잘 자라도록.
 4. 신학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헌신된 일꾼들이 되어 캄보디아 교회를 섬기도록.
 5. 도시에서 공부하는 일반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빛을 발하게 살아가도록.
-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에스터 선교사 올림.



이 생기고 관계들이 복잡해지고 이웃집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하나고 걱정하는 마음의 짐들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 힘입니다'고 아뢰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아리들이 중담이 되기도 전에 많이 죽기 때문에 가여워서 닭장 6개에 갓 부화된 병아리들과 암탉을 함께 넣고 한달반을 키운 후에 밖으로 내놓는 것을 작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학생 두 명과 닭을 돌보면서 어미닭과 병아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병아리를 거느린 암탉 결연 다른 닭들이 일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미닭이 결사적으로 새끼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코코넛 열매의 물을 먹은 후 남은 과육을 닭들이 좋아합니다. 닭장 안에 넣어주면 어미

있고 생활훈련과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 5마리와 닭 100여 마리를 학생들이 돌보고 기르며 생활훈련을 하며 동물을 키워서 미래에 여기서 나오는 펀드로 센터 기숙사 출신 학생들의 대학교 장학금과 센터 운영을 할 수 있을 자립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2. 방과후 영어학교: 현재 월-금-5-6 오후에 8개 클래스에 21명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은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월급 지급하는 선생은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영어 상급반 학생이 하급반을 가르치는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리더십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학생들이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성경공부 시간으로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

어른이 5분이며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어른들이 매 주 수요일 아침에 2시간씩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 교회를 섬기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 개미산 마을(프놈 스로마웃 마을): 2013년 12월 30일부터 에스터 선교사, 잔다, 소페라 3명이 매 주 토요일 정오부터 1시30분까지 센터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마을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서 11명의 어른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40여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월-금요일엔 오후 1-2시까지 에스터 선교사와 사란 선생이 영어를 2개 클래스로 나누어 가르칩니다. 단기팀방문 때 의사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했고 축조전도를

<13면에서 계속>

중요한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미국의 "대사명 선교단체"(Great Commission) 창설자 토마스 왕 목사와 Ambassador for Christ 추무 데이비드 차우 목사가 이 BJM 선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루살렘 선교대회에서 7개 조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그것의 하나는, 우리가 굳건히

믿기는 우리는 복음을 무슬림과 유대인과 미 전도종족에게 전해야 하며,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 투쟁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빌1:30)는 것이다.

결론

아시아의 교회는 아시아 인구(45억) 가운데 단지 5%밖에 안되며

95%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중요한 도전을 안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양방면으로 찾아온다. 첫째로 아시아-1 국가에서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선교운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둘째로 아시아-2, 아시아-3, 아시아-4 국가에서는 무슬림 극단주의, 불교, 공산주의 핍박으로 아시아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바울의 1세기 때 에베소에서 강조했던 선교전략이 21세기 아시아 교회에도 적합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바울이 왜 에베소교회에 교회 지도자의 은사를 강조했는가? 그 이유는 적은 수의 에베소교회 지도자를 훈련시켜 그들이 대도시의 에베소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아시아의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들도

교회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 교회 평신도는 전도, 청년사역, 사회봉사, 교회설립 등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민족복음화운동"이 아시아의 많은 미전도종족을 복음화 하는데 긍정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은 한국 기독교인에

게 있는 것이다." 서양과 아시아 선교단체들은 선교전략을 바꾸어 신학교육 방면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 아시아에서 열열히 사역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아시아교회를 동원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하도록 인도하실 것으로 믿는다.

(끝)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02)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p>	<p>금란교회</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광주신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기승</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화기도회: 오후 9:00</p> <p>Tel. (0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교역사리 북구 관암동 936-1번지</p>	<p>동경중앙교회</p> <p>담임목사: 이강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p> <p>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장향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p> <p>Tel. (03)977-8383-9, Fax. (03)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인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평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주말) VIA DEI QUINTRA 32-38 00175 ROMA, ITALY</p>	<p>명성교회</p> <p>담임목사: 김삼환</p> <p>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 7월 4회</p> <p>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p>	<p>새에덴교회</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 휴무, 워킹데이 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Fax: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주일4부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p> <p>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0)</p>	<p>성실교회</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seongsil.or.kr Tel. (02)2-998-0988, Fax. 9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21-49 (142-073)</p>	<p>성일교회</p> <p>담임목사: 김정곤</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p> <p>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수영로교회</p> <p>담임목사: 이규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p> <p>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p>
<p>수정교회</p> <p>담임목사: 조일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04(270)</p>	<p>승등교회</p> <p>담임목사: 박상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137번지</p>	<p>시온사회교회</p> <p>담임목사: 김성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419-2</p>	<p>신길교회</p> <p>담임목사: 이신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02)41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p> <p>담임목사: 송용결</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마포동로 172 29(잠실동) www.shincheon.or.kr</p>	<p>신촌교회</p> <p>담임목사: 이정익</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p> <p>Tel. (02)2-786-6579, 새벽: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조 윤</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p> <p>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기 2동 146-7</p>
<p>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로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기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화기도회: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p> <p>담임목사: 주승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3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p> <p>담임목사: 주서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p> <p>담임목사: 이진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64)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6. 교회교육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오늘 이야기에서부터는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을 시작하고자 하는 한인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실질적 팁(tips), 혹은 유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중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의점은 “커리큘럼 계획은 정적인(set/static) 것이 아니라 동적인(movable/transmutive)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커리큘럼 계획이란 어느 한 해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의 커리큘럼을 한 번에 계획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그렇게 고착,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은 올해 세운 커리큘럼이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교육의 강조점, 방법 등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존의 계획이 충분히 변경될 수

다시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의점입니다. 이는 교육 목적 및 교육 내용적 대지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의 교육적 목표 및 교육의 방법 등을 고민할 때, 교회학교 자녀들 및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회적, 신앙적 상황 및 형편, 교회공동체의 교육적 및 제반 형편,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지역적 환경 등을 고려해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교육 목적과 내용적 대지에 있어서, 그 커리큘럼을 계획코자 하는 교회의 형태가 대교회나 소교회나에 따라 커리큘럼이 달라져야 한다거나, 신앙수준 및 교육수준에 따라 커리큘럼의 목적 및 내용적 대지가 달라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교육은 그 피교육자들의 신앙형성과 영적 성

정 주제가 A교회의 그것과 동일하게 계획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B교회 중등부 구성원들은 그 신앙수준이 보다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보다 오래 신실하게 해온 상황이라면 현재 그들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성을 기반으로 그 의로운 관계를 친구와 가족과 이웃에게도 마땅히 확장해야 한다는 측면을 보다 풍성하게 보다 많이 다룰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 목적 및 내용적 대지에 비추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에 각자의 교회학교에 맞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교육자, 교육자, 환경, 사회, 성도간의 관계 등등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을 하고자 할 때, 그 담당자들은

커리큘럼 계획은 동적이므로 교회 상황과 형편 고려해야 비전이 실제로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교육자 자녀들의 구성 및 성숙이 정적이지 않고, 교육자 교사들의 구성이 정적이지 않고, 교육의 장인 우리 환경이 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의 목적과 내용적 대지가 상황 따라 변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 교육 목적 및 내용의 대지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 따라 교육 목적과 내용적 대지가 이리저리 변한다면 사실 커리큘럼의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커리큘럼의 계획 및 수립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는 교육 목적 및 교육 내용의 대지를 견고히 체계화하는 작업이며, 그 체계가 실현되도록 활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의 계획 및 수립의 담당자들은(주로 목회자들과 교육부 관련 인사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늘 중심을 지키되 유연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을 하고자 할 때, 그 담당자들은 반

속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교회가 동일할 것이며, 각 교회가 어떠한 교육적 강조점을 갖느냐에 따라 그 내용적 대지가 다르게 표현될 수도 혹은 동일하게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커리큘럼 계획에 있어서 그 목적과 내용적 대지를 풀어내는 실제적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각 교회가 갖추고 있는 교육 자원들에 따라, 혹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와 공동체의 지적, 신앙적 사회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A교회의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의 담당자들이 중등부 3년의 커리큘럼 주제를 “Reconciliation with God and friends”로 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만약 현재 그 교회의 전체적인 중등부 자녀들의 신앙적 상황이 새신자가 많아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성을 먼저 정립할 필요에 방점이 찍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주된 사람들에게로 확장시키는 부분은 이 교회의 중학교 커리큘럼에서는 축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후 사정이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교육내용의 대지로 다시 돌아가 재정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유의점에서 말했듯이 커리큘럼은 충분히 동적인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B교회의 중등부의 교육과

반드시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신들의 교회공동체의 상황과 형편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못한 채, 전체 교회 사역에까지 무리를 야기하면서,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의 담당자들은 교회 가진 재정적, 인적 자원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커리큘럼 계획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전 교회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행하며, 현실적으로 소화 가능한 커리큘럼을 계획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될 때 지나치게 전체 공동체에 무리를 줄 것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 계획하거나, 실현 가능성 없는 부분들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갖는 것은 커리큘럼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큰 비전이 실제로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 위해, 우리가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에 임하는 것임을 또한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그리스도의 탄생(눅1:32)찬109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탄생 계시는 이미 구약에 약속된 일의 성취임을 본 절이 말해줍니다. 첫째, 탄생하실 분은 큰 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 곧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2위 독생자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요1:1).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창3:15) 성부의 구속을 모두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둘째, 그는 겸손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최대의 겸손인 그의 죽으심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이 암시되었

습니다. (창3:15)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에만 구속이 있습니다. 셋째, 다윗의 위란 메시아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일찍이 다윗에게 세상을 다스릴 절대왕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1200년 후 다윗 가문의 한 작은 여인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를 내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 안에 놓인 구속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화 회복의 은총(눅5:1-8)찬405장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얻은 은혜를 보여준 8절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실패와 기적 속에서 자신이 무력한 죄인임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처절한 죄인의 모습인 자기를 아는 것이 은혜 중 은혜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따르던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과 근본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신지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거듭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 그 만을 의지

하게 됩니다. 셋째는 사람을 취하려는 사명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교만한 마음보다 평범한 삶 속에 겸손한 마음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공해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 실패 속에서 주님 자랑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한 기적체험도 귀하나 기적 이후에 더 겸손해짐과 함께 본래의 사명을 확인받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교회봉사는 언제나 자아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 자리로 나갑시다.

수 신앙의 거침들(눅8:1-14)찬484장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듯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씨 뿌리는 천국비유에서 성장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처럼 세 가지 거침들을 치워야만 합니다. 첫째 거침들은 인생의 염려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필요하지만 세상 염려는 우리를 불안으로 떨어뜨립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근심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상상을 초월한 평강을 부어주십니다(빌4:6-7). 두 번째는 재리

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곧 부하려는 마음은 일단의 뿌리가 됩니다. 물질은 우리생활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앞 설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락이 성장의 세 번째 거침들입니다. 여기선용은 필요하지만 향락에 빠지면 영적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른 성장을 합니다.

목 구원받는 방법(눅9:1-24)찬543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온전한 구원과 깊이 관계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음을 시작하신 자신의 신앙은 축복에서 죄 사함과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구원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자아부인, 자기 십자가 집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24). 또 주님은 이를 가리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

을 잃으면 얻고 얻으려면 잃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를 뜻으로 믿고 고백받은 목숨을 주를 위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 산 제물로 드릴 때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은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눅11:1-20)찬247장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이 오심으로 현재화돼 제림으로 완성됩니다.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은 그 나라의 현재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20). 그 나라가 벌써(already) 임하여 강력한 능력으로 진행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구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나라는 이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곳입니다. 둘째, 초자연적 능력이 드러납니다. 작은 겨자 씨나 누룩

처럼 보이나 전부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부끄럽게 하는 원리가 그 나라의 특징입니다. 셋째, 그 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체현됩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고 순종할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받는 일도 귀하나 무엇보다 그 말씀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왕권에는 부요와 지혜와 영광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토 탐심을 이기는 길(눅1:1-15)찬197장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욕심입니다. 이 욕을 주님은 종종 자아 탐심, 욕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15). 첫째,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떨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이를 우상숭배, 야고보는 모든 죄와 사망이 바로 이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탐심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거역하게 하는 교활한 기술을 가집니다. 둘째, 때로는 경건의 모습을 띤 탐

욕 곧 외심으로 나타났고 열심이란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 탐심은 모든 신자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죽음이 아니라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어느 사이 탐욕이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셋째, 이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를 갖는 길 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의 말씀을 최고권위에 둘 때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탐욕을 물리치는 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년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광고안내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 장로교(PCUSA) 총회의 결정과 우리의 입장

1. 미국장로교 221차 총회는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간에 맺는 시민계약“(헌법 W-4.9001) 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목사와 당회는 자신들의 양심과 믿음에 의해서 동성결혼을 집행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은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위의 총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기존의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 결합으로 수정하자는 안건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수정안의 최종 결정은 1년 내에 171개 노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이번 결정의 중요한 점은, 목사와 당회는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긋난다고 확신할 때는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건물사용 포함)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도, 강요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성명서(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는 금번 221차 교단총회가 내린 동성결혼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1.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
2. 우리는 미국의 여러 주(현재 19개 주와 Washington DC)에서 점차 합법화되어가는 동성결혼이 분명히 비성서적이라고 규정하며, 우리의 신앙양심에 따라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힌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도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는 221차 교단총회가 결의하며 산하 노회에 수의한 동성결혼에 대한 개정안의 통과를 결연히 저지할 것이며, 산하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도 동성결혼의 집례나 이를 위한 교회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4. 6. 24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 회원일동